

성도의 빛 5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5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헨더,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취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5권, 제24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5KO
PRINTED IN KOREA 5/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년 전, 5월에 펜실바니아주, 하모니 근처의 아름다운 사스캐하나 강둑에서 아론 신권이 침례 요한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되었다.

목차

- 2 대관장단 메시지 :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 8 물몬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 :
일상 생활을 위한 영양 공급 드웬 제이 영
- 10 켈스타운으로부터 시메질레까지 이 이 포리
- 13 질의 응답 :
교회에 대한 질문, 사샤 윌리엄 콰핀스키 ;
이식을 위한 기관 기증, 세실 오 새뮤얼슨 이세
- 16 리카르도 페레즈 : 케잘테낭고에서 삼 세대 복음 유산을 세움 단 엘 서얼
- 20 데이비드 마리아 라모스
- 22 물몬 경험 : 우리 교실에 깃든 차분한 분위기, 내다인 도일 ;
구세주의 계획에서 기쁨을 찾음, 윌마 가드너 ;
보상받은 그 긴 시간, 샤론 드모단트
- 25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 회개의 과정 래리 티페츠
- 28 기도에 대한 응답 아텔 리스
- 29 가족용 지침서 : 연구와 신앙으로 배움
- 32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리 프루인과 허민 비 호먼
- 35 부활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
- 36 방문 교육 메시지

청소년

- 37 나의 추구의 종말 캐롤 세이어즈 풀우드
- 39 여러 계절 레어드 로버츠
- 40 “그가 길을 예비하시리니” 캐롤린 슈나이더
- 42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카알 휴턴
- 44 두 배의 행복 맬빈 레비트
- 48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이크 오스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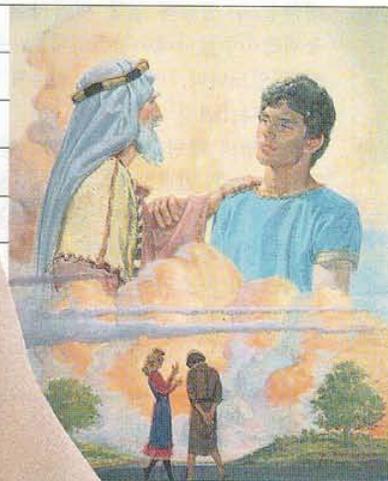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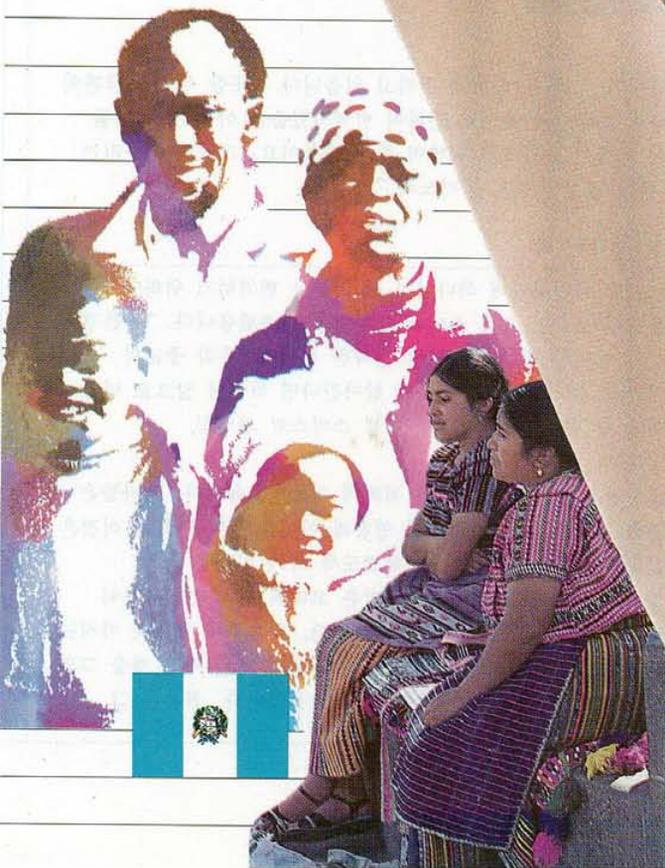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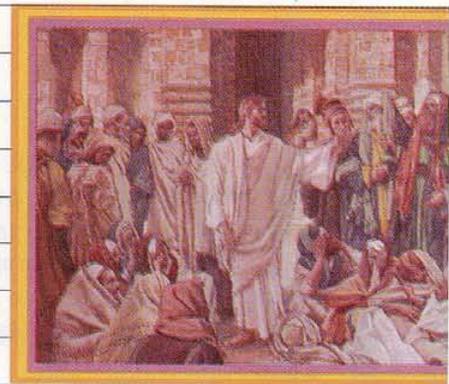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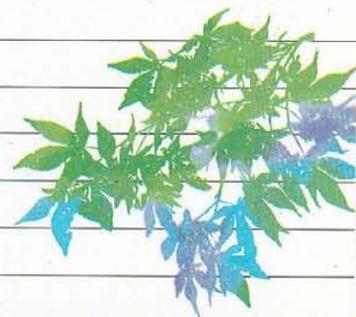
성도의 빛 어린이란

- 2 아들 엘마의 개심 경전 이야기
- 4 물몬경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들 재닛 피터슨
- 5 물몬경 활동
- 6 방법을 알아낸 후아니토 캐롤 에스 레몬
- 8 색칠하는 페이지

교회 및 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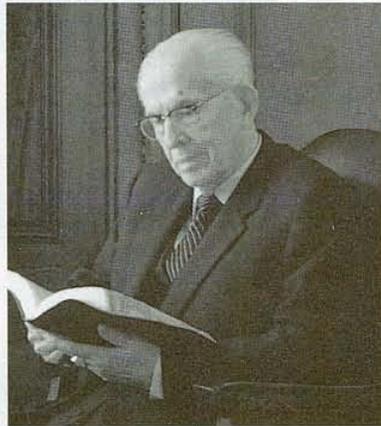


영광의
순례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물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8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선언하셨으며 물몬경의 저자들이나 물몬경의 목격자들, 또한 이 책을 읽고 그 참됨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언해 왔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물몬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능력을...주셨나니...물몬경에는...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성 20 : 8~10)

물몬경의 예언자이며 저자의 한 사람인 니파이이는 이 책이 “그리스도의 말씀”(나이 33 : 10)을 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으며 이 책의 마지막 저자인 모로나이는 “이러한 것이 참된 것”(모로 7 : 35)이라고 간증합니다.

바로 이 모로나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로서 이러한 고대의 기록을 우리 시대의 세 목격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그들의 간증은 물몬경의 앞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책이 진실한 것임을 아노라.”

가장 정확한 책

그리고 예언자이며 하나님이 이 기록을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인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물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0페이지)

물몬경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은 그들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축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지음받은 고대의 선지자인 물몬이 여러 세기에 걸친 기록을 요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어떤 것을 그의 요약편에 넣을 것인가를 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물몬은 그

기록을 마지막 기록자인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도 더 이전에 기록하면서도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몰몬서 8:35)

유대인과 이방인을 확신시킴

몰몬경의 목적은 그 표제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첫 예언자이며 저자인 니파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오직 사람들을 권고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며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려 하노라.

“또한 나는 후손들에게 명하여 만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 판 위에 기록하지 않게 하리라.”(니일 6:4~6)

몰몬경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첫째, 이 책은 단순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분의 신성과 구속주의 필요성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타락과 구속을 증거하는 외에도 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닐 필요성을 포함한 복음의 첫째 원리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의 가운데 끝까지 참으며 성도로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드러내어 막음

둘째로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적들을 노출시킵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뒤집어 없으며 논쟁을 잠잠케 합니다.(니이 3:12 참조)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강화시켜 오늘날 악마의 사악한 계획과 술책과 교리에 대항하게 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배도의 형태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도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영원히 미리 아시는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몰몬경의 형태에 영감을 미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 시대의

그릇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 개념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몰몬경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몸소 몰몬경을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어 있으며, 읽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육받지 못한 소년이 쓴 책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로나이는 우리가 이 책에 있는 것을 다 읽고 나면 그것을 시험해 보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 나는 모로나이가 제의한 대로 했으며,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그것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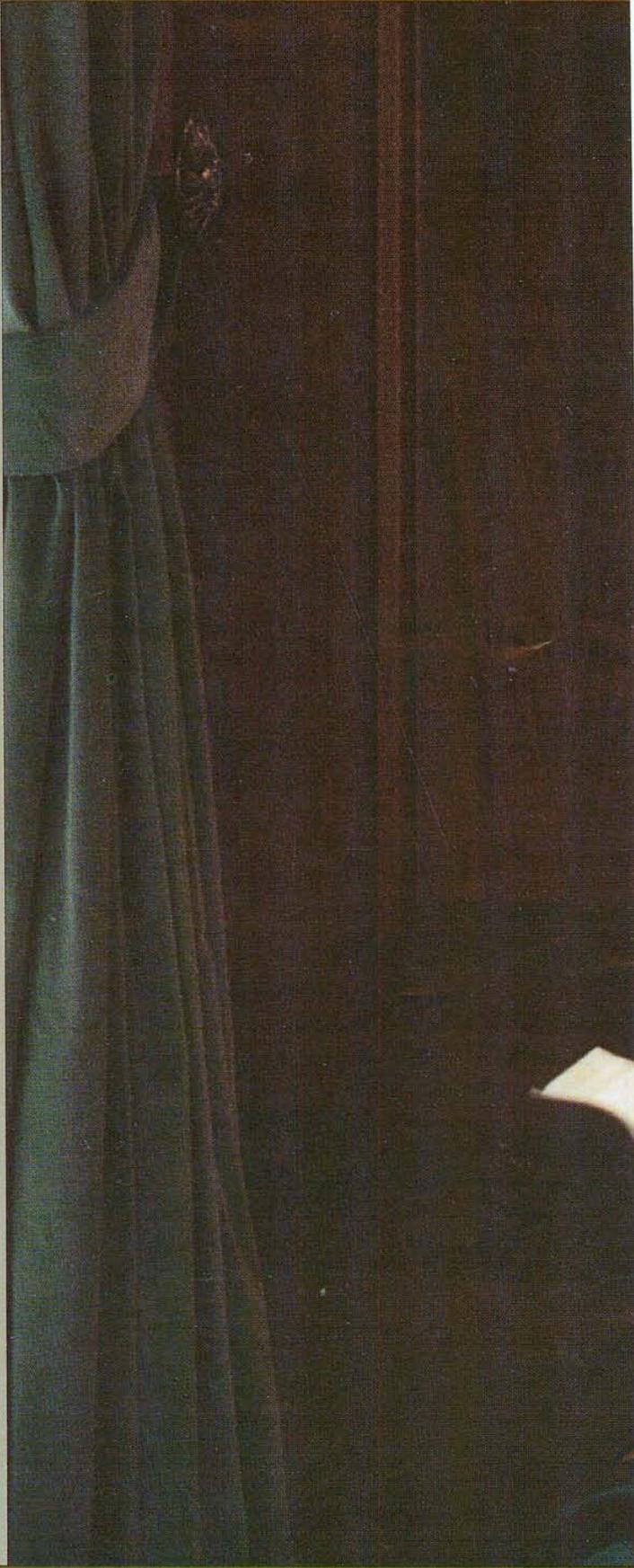
충만한 복음

우리는 몰몬경을 우리의 가르침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12절)

읽고 가르칠 때, 우리는 몰몬경의 경전 구절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가르쳐 주”게 해야 합니다.(니일 19:23)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몰몬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시현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 요셉 스미스는 어떤 목사에게 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목사가 오늘날에는 시현이나 계시 등과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런 것은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요셉 스미스 2:21 참조)

이 말은 비회원이나 모반한 회원이 모두 교회에 대하여 적대한 모든 것을 실제로 상징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 뜻을 교회에 계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낙태, 복수 결혼, 제칠일 예배 등 모든 반대는 근본적으로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거룩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또 현재 예언자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을 사용하여 모든 반대를 다루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간증했다.

부셋 사진



절차를 여기 들어 봅니다.

첫째, 반대를 이해합니다.

둘째, 계시로부터 해답을 줍니다.

세째, 그 해답의 올바름이 우리가 현대 예언자를 통하여 현대의 계시를 받는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 줍니다.

네째, 우리에게 현대의 예언자와 계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몰몬경이 참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반대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주된 문제는 몰몬경이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일 몰몬경이 참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예언자였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되며 오늘날 계시를 받는 예언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음이 입증됩니다.

우리의 주요 과제

우리의 주요 과제는 복음을 선포하며 또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반대에 대하여 다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권세와 크신 영광으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보이실 것이요, 너희와 내가 주의 심판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서리니, 비록 내가 연약하나 주의 명령으로 내가 이것들을 기록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리라.”(니이 33 : 11)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리라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몰몬경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백성 앞에 기호”로 사용되게 될 것이며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니이 29 : 2) 우리 교회 회원과 특히 선교사들은 세상 끝까지 몰몬경에 대하여 “울려 퍼뜨리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사용할 위대한 기호입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이 책의 위대한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데려 가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차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의 황금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더 배우고 싶습니까?”라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구도자에게 감명을 주는 위대한 선교 도구입니다. 이 책에는 “세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니일 6 : 5) 것이 담겨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몰몬경은 위대한 체계입니다.

열심히 알리고 함

누구든 몰몬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열심히 찾고 선교 사업에 있어서 주의깊게 사용한 사람은 영혼 속으로부터 이 책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레이멘인에게 우리의 메시지의 진실됨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주신 바로 그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몬경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데려 가기 위하여 몰몬경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활용하여 그릇된 것을 폭로하고 맞서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 가족이 세상적인 경향과 가르침에 의해 물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갖고 “외치지” 않는 한 우리 선교사들은 참으로 효과적이 되지 못합니다. 몰몬경에 담겨 있는 충만한 복음을 강하게 믿지 않는 한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교육적 개종자들이 오늘날의 유혹 속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기호로 받들지 않는 한 교회에서 우리의 공과반에 충분히 영으로 가득 차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기울이며 몰몬경에서 고대 문명의 물락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비밀 결사를 만들고 지지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상황은 계속해서 타락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종자를 기억함

일부 초기 선교사들은 귀환했을 때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몰몬경을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주님의 견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몰몬경을 이렇게 다루면 모든 교회가 즉 시온의 모든 자녀가 정죄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몰몬경...을 기억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54~57절 참조) 우리는 아직도 저주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몰몬경을 읽는 것은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 가장 훌륭한 설득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몰몬경을 알고 사랑하는 와드와 지부와 가정 출신의 좀더 준비가 잘된 선교사도 역시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가지고 만나고 가르칠 크나큰 도전과 준비의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메시지에 영적으로 대등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경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는 중대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교성 20:14~16)

물론경은 참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의 적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책에 대한 간증을 얻고 이것으로부터 가르치며 이것을 기호로 받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왔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축복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평생의 추구

말일성도는 누구나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자신의 전 생애에 영적 및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경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계속해서 쇠막대를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개종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사반 세기 전에 태버내클에서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법률 업무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은 약간 불안해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 했습니다. 나는 법률 업무를 행하고자 했으나, 내 간증을 지키려는 열의가 훨씬 더 컸으므로, 한 가지 작은 절차를 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매일 아침 그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삼 십 분 동안 물론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잠깐 동안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구 년 동안 매년 한번씩 물론경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내가 지켜 온 정도로는 주님의 영에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 못지 않게 우리를 주님의 영광 가까이 하게 해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9년 4월, 36페이지)

나도 여러분에게 롬니 회장님의 권고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경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나는 물론경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물론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0페이지)

우리가 그 종석을 알고 활동하며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토론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벤슨 대관장은 물론경은 우리 시대에 사용하도록 씌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2. 벤슨 대관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경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들이 악마의 악한 계획에 대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 말일성도는 누구나 물론경 공부를 평생 동안 추구하는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벤슨 대관장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물론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2. 우리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언자들의 간증에 의지해야 하는가? 혹은 스스로 확실히 알 수 있는가?
3.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경을 공부할 때 오는 축복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 여러분도 물론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과 자기 생활에 있어서 물론경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는가?



일상 생활을 위한 영양 공급

드웬 제이 영

나는 고등학교에서 세미나리 반원이었을 때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교사가 우리에게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목표를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전에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참됨을 증거해 주는 가운데 내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주님이 니파이에게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겸손을 다하여 부지런히 나에게 구하였음이라.”(니일 2:19)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기를 원했다.

삼 년 후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 축복은 내 간증이 강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을 읽도록 훈계하고 있었다. 이 거룩한 경전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물몬경에 들어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 기도의 필요성과 축복에 대한 간증이 커졌다. 침대 청소년으로서 시험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야 할 때마다 엘마서 34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했다. 나는 용서받고 또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늘 그곳에 계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그분은 실제로 끊임없이 화평과 위안을 주셨다.

우리의 막내 아들 제프가 아장거리고 다니던 때 나는 이노스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울 수밖에 없었으나(이노스 1:4) 좀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했다. 제프는 어떤 해로운 화학 약품을 삼켜서 숨을 쉬지 못했다. 나는 그를 팔에 안고 미친듯이 차로 달려가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가며 주님께 제프가 숨을 쉬게 해주시도록 큰소리로 간구했다. 무한한 시간이 흐른 것만 같았다. 호흡 기관이 열려서 숨을 쉬었으나 이미 그의 몸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나는 감사하며 울었다.

그 이후의 오 년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우리는 자녀를 더 원했으나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야곱서 4장 10절을 읽는 동안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나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마침내 화평을 얻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자녀를 축복받았다. 그러나 그 일은 그분의 일정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생에는 실제로 시련이 있으나 물몬경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하게 해줄 수 있다. 엘마가 힐라맨에게 충고한 것이 나에게서는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엘마서 37:37)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감사의 느낌은 하루를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지명을 받고서 자신이 부적합하고 능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면 엘마서 20장 4절에서 라모나이가 암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했다. 라모나이가 나에게 훈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주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무엇이랴도 다 하시라는 것을 아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과업이 주어지든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준다.

물몬경이 나를 위해서 해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과 경외심을 깊게 해준 것이다. 니파이삼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그분이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다.(니삼 17장)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훌륭한 책을 연구함으로써 나도 그의 메시지를 들었다. 나의 간증이 강해졌으며 나의 생활도 더 나아졌다. 만일 내가 나의 직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면 그 말씀이 내가 해야 할 것을 모두 다 말해 주리라는 것을 안다.(니이 32:3)□



퀸즈타운으로부터 시

남아연방의 한 고등 평의원이 격리된 흑인 회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강화됨

이 이 포리

내가 남아연방의 더반 스테이크에서 새로 지명받은 응시 고등 평의원으로서는 퀸즈타운을 처음 방문할 때부터 잊을 수 없는 많은 경험이 시작되었다. 그런 경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인종의 그의 자녀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시는지 또 그분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과 보호를 보여 주시는가를 좀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퀸즈타운은 케이프 프로빈스의 동쪽에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시스키와 트랜스키의 흑인이 거주하는 여러 주 사이에 위치해 있다. 나는 해안 쪽으로 이스트 런던, 퀸즈타운, 시스키의 사다와 시메질레, 트랜스키의 일링게에 있는 교회 단위 조직을 담당하도록 지명받았다.

짐바브웨의 하라제로부터 최근에 이민온 나는 처음에는 이곳을 방문할 때 데니스 라우벤하이머 형제의 동반자로 봉사했다. 그는 이전에 지방부장단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장 의사 집회소

퀸즈타운 지부의 집회소는 독특한 곳이다. 교회 회원이 아닌 장 의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장 의사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곳은 나무 판자로 된 벽과 흐릿한 조명과 특별한 의자와 울겐으로 되어 있다. 성찬식 모임에서 마지막 연사의 말씀은 보통 이웃

좌로부터 : 시메질레 지부 회원들, (포리 형제는 오른쪽 끝에 있다.) ; 윌슨과 슈디 응쿱과 그들의 자녀들 ; 일링게 지부의 회원들 ; 사다 지부 회원들



메질레까지

교회의 종소리 때문에 방해받게 된다. 때로는 그 종소리가 몇 분 동안 계속되며 연사는 그 종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더 큰소리로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흑인 주에 있는 외딴 지부를 방문할 사람들이 여행할 시간을 갖게 되므로 지부의 모임이 일요일 아침 7시에 시작된다. 라우벤하이머 형제와 나는 그렇게 퀸즈타운을 처음 방문한 후 일링게를 향하여 떠나 그곳에서 오거스틴 미에바 지부장과 칠십 명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골함석 지붕에 흙 바닥으로 되어 있는 학교 교실을 세내어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그 건물을 어떤 다른 종교 단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단체는 아프리카 북을 사용하여 노래를 인도했다. 그러나 그런 북소리와 노래 소리의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영을 느꼈으며 그런 상황에서 모임을 갖는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그 다음에 퀸즈타운을 방문할 때 사다 지부와 시메질레 지부에도 들렀다.

독특한 화음

사다에 있는 교회 회원은 바닥이 소나무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링게에 있는 것과 비슷한 학교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도착하자, 헤드먼 쿠올라 지부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 주었다. 그런 다음 그 육 십 명 지부 회원이 모두 줄을 서서 우리를 따스하게 영접하여 악수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지부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들의 토속어인 코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역사를 활용한다. (스테이크 부장이 고등 평의원들에게 그 말을 배우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극복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부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경험이다. 그들의 맑고 울리는 음성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충분히 인식하려면 그들의 노래의 독특한 화음과 성량을 들어야 한다.

사다의 성도들과 참으로 영적으로 고취시키는 모임을 가진 다음 우리는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달려 시메질레로 여행했다. 이런 길에서는 바위 투성이의 강바닥을 건너는 위험뿐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양과 염소 등의 위험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번은 내 차의 배기 기관으로부터 퍼플러가 꺼져 나가 버렸다.

시메질레에서는 내가 알았던 어떤 가족 못지 않게 참으로 영적인 가족인 윌슨 응쿱과 및 슈디스 응쿱과 그리고 그들의 여덟 자녀를 만났다. 응쿱과 형제는 그들의 전형적인 아프리카식 룬대별 주택(남아프리카 원주민의 둥근 오두막집)의 외벽의 훌륭한 석공일을 직접 했다. 교회 대관장 및 총관리 역원의 사진과 우리 찬송가 가사를 담은 포스터가 흠하나 없이 깨끗한 그들의 집의 벽에 걸려 있다.

라우벤하이머 형제는 어린이들까지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그들의 이 초라한 집에서 우리가 경험한 경건한 영은 주님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못지 않다고 말했다.

주례 방문

첫 방문을 한 직후 라우벤하이머 형제는 이스트 런던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았으며, 우리 가족은 퀸즈타운으로 이사했다. 퀸즈타운에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나는 이전처럼 월례로 방문하는 대신 한 동안 외딴 지역의 모든 지부를 매주 방문했다.

퀸즈타운에서 흑인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다. 폭력 사태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 모임이 방해를 받았다. 사다 학교의 일부도 불에 탔으므로 회원들은 집회소도 없이 지내게 되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선교사들은 소환되었으며 그 소요 지역의 방문은 주님의 영의 권고를 받을 때에만 행하여졌다.

한번은 그렇게 방문하면서 나의 아들 리차드와 함께 사다로 여행해서 그 지부의 형제들은 모두 다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정치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매들에게 어느 정도 영적 격려를 해줄 수 있었다. 또 우리는 심한 두통을 앓고 있는 자매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었다.

주님의 보호를 구했음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시메질레였다. 우리는 응쿱과 형제를 방문했으며 그는 그 지방의 난폭한 청년들이 그전 날 밤 몇몇 가족의 집으로 밀고 들어와서 구타하여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고 말했다. 응쿱과 가족은 무릎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를 구했다. 그 안식일 새벽이 오기까지 그들은 집에서 무사히 지냈다.

그후 시메질레를 방문했을 때, 리차드와 나는 응쿱과 형제가 몹시 아픈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했는데, 그가 성찬에 대한 합당한 경건성을 표하기 위하여 양복과 넥타이를 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나서 정장을 한 후에야 집행했다. 그는 리차드와 내가 그 주일에 오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영이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증거했다고 말하면서 울었다. 리차드와 나는 떠나기 전에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응쿱과 형제를 축복했다.

그 다음 날 나는 응쿱과 형제가 어찌지 보려고 그의 집에 갔다. 그의 아내 주디스는 그가 완전히 나왔으며 발을 갈고 있다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경고에 귀 기울임

어느 일요일 나는 사다에 있는 회원들과 모임을 하러 가는 길에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아내에게 만일 내가 안 가면 그들을 실망시키게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내는 “여보, 만일 영이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신다면 그 권고를 들어야 해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대로 했으며 그 다음 사다를 방문했을 때 아내의 충고가 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그 주일에 방문했다면 폭동에 휩쓸렸을 것이다. 경찰이 분노한 폭도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했으며 성도들은 그 최루탄 개스가 집회소로 흘러들어 흩어져 강제 해산되었다는 것이다.

트렌스키 정부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일링게 시부에 대한 정규적인 방문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퀸즈타운과 시스키 지역에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사다에서는 성찬식 참석이 급격히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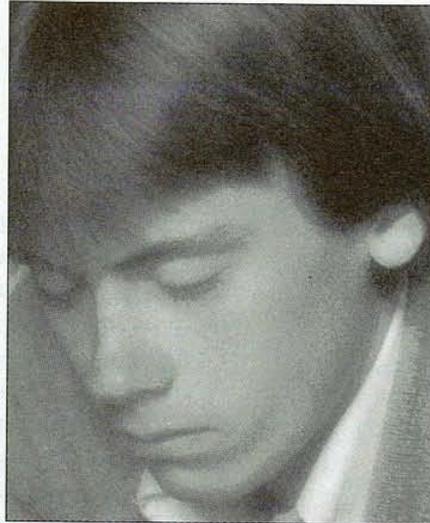
다시 한번 나는 일요일 집회에 참석하러 사다에 가면 안된다는 속삭임을 느꼈다. 이번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경고에 귀기울였다. 쿠올라 지부장은 사다에 있는 회원들이 내가 그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그 후에 이야기해 주었다. 쿠올라 지부장이 밀고자이며 내가 정부의 간첩이라고 확신했던 젊은이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슬픈 일이지만, 스테이크 부장에게 그 소요가 진정될 때까지 사다 지역을 폐쇄할 것을 건의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후 넉 달 동안 그 지부를 방문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썬퍼 형제와 내가 사다의 상태를 알아보러 갔을 때 그 회원들이 그 넉 달을 잘 견딘 것을 알게 되었다.

퀸즈타운뿐 아니라 일링게, 시메질레, 사다 지부의 회원 및 지극히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친분을 맺고 지내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였다. 그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백성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성취해야 할 위대한 사업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질의 응답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이며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 설명은 아님



교회의 일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모건힐(캘리포니아 제2와드) 회원인 사샤 윌리엄 콰핀스키는 여러 해 동안
참된 교회를 찾아다닌 후 1971년에 교회에 들어왔음

신 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믿을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에서 다른 시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쌓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일에 직접
전념하고 그 다음 간증을 얻고 지키기 위한 단계를 따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간증을 축복해 주십니다.

간증을 구하는 동안 또 우리가 신앙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때때로 우리는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식을 구하는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간직하는 한 의문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는
우리의 의문이나 의심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문과 부정직한 의문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직한
의문은 참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진리를 좀더 완전히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정직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진지하게 지식을
구하고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의문은 그 의문 자체를
영속화시킵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결점
찾기와 강박한 마음을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의심하고 믿지
않는 상태로, 심지어는 자신의 불확실한 아이디어나 대상 자체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상태로 곧 옮겨 갑니다.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신앙입니다. 의문과 신앙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의문이나 불확실한 것이
신앙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뜻보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한 의문을 품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로
자신의 현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또 초월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앙—성실하게 노력하고 물어 보고 추구한 후에
이해와 지식과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얻게 되는 신앙을 쌓게
됩니다.

어린 요셉 스미스는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5~6절을 읽은 다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답은 은총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질문에 있어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지식과 간증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충분한 동기를 갖고자 한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경의 선지자인 엘마는 정직하지 못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더 많은 고뇌와 또 그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알아들을 수 없으며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마음을 강박하게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밖에 듣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조금도 알지 못하며 드디어는 악마의 힘에 사로잡혀 악마의 뜻대로 멸망으로 이끌려 가나니,”(엘마서 12:10~11)

불확실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결과일 때가 흔히 있으므로,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마는 우리에게 진리를 배우는 훌륭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엘마서 32:26)라고 정의내린 다음 그는 진리를 마음에 심어져서 주님의 영에 의하여 영양을 공급받으며, 영혼을 부풀게 하고, 씩이 트게 하고, 키워 주며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는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버려지지 않으며, 성장하여 과일을 맺게 되고 격려하게 됩니다.

“이제 보라, 이제 이 일에 대하여는 너희가 완전히 어느나? 그러하도다. 이 일에 대하여는 너희가 완전히 알고 있으나, 너희의 신앙은 잠들어 있느니라.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하고 씩이 텃음을 너희가 알았고, 너희의 이해가 밝혀졌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으며”(엘마서 32:34)

그런 다음 그 정직한 진리의 추구자는 다른 의문 혹은 불완전한 지식의 분야로 가서 다시 씨앗을 심고 양육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뻗어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너희의 부지런함과 신앙과 인내로 말씀을 가꾸어 너희 안에 뿌리를 퍼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너희는 차차 가장 진귀하며 가장 향기로우며 뛰어나게 희며 순결한 것 중에서도 으뜸으로 순결한 열매를 거두어 배부르도록 먹게 되리니,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엘마서 32:41~42)

모로나이는 불확실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류의 정직을 또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우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사서 10:4~5)

만일 복음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때때로 의문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의 간증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정직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불분명한 것을 이해하고자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문을 믿는 지도자에게 문의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정직한) 마음” “참 뜻”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온갖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식 수술을 위해 신체의 일부
기관을 기증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새실 오 새류엘슨 이세,
박장, 지역 대표, 의사임

신 체 기관 이식을 진실로 우리 시대의 의학적인 경이로
들 수 있습니다. 의학은 신장, 눈의 각막, 심장, 간,
폐, 골수, 피부, 책장 등과 같은 다치거나 병든 신체
부분의 교체가 흔히 있는 정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증자는 죽기 전에 특정 기관이나 세포를 기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신장 등과 같은 일부 기관은 그
기증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과학적 발전과 마찬가지로 기관 이식에
대하여서는 심각한 경제적, 법적, 도덕적, 종교적 의미가 담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많은 중요한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관하여 지식을 연구하고
결정하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도록 훈계받고
있습니다. (교성 9:7-9; 58:26-28 참조)

교회에서는 기관 이식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기관은 죽은 후에는 곧 흙의 기본
성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기관 이식이 사람의 부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기관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육신의 사지와 관절이
원래의 모양대로 회복되고 머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엘마서 40:23)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관 기증과 교체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과 그
가족에게 훌륭한 축복이 왔읍니다. 이식 수술을 담당한 여러
의사들이 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고무적인
이야기와 편지에 대하여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가족들이 중요한 기관 이식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거나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위안을 받았읍니다. 또 어떤 가족은 살아 있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관을 기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나 죽음을 면하게 되었읍니다.

기증자 및 수혜자를 돌보면서 또 이 생명과 건강의 선물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앉은뱅이 거지를 만나서 행한 것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 앉은뱅이는 구걸했으나 그 대신 병고침을
받았읍니다. 베드로는 그 궁핍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사도행전 3:6)라고
말했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엄격한 요건에 적합한 사람만이 기증자로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심스런 검사와 이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증자는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한쪽 신장을 기증하고도
남아 있는 신장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읍니다.

중요한 기관을 이식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기도하는 자세로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

리카르도 페레즈

과테말라, 케잘테낭고에서 삼 세대 복음 유산을 세움

단 엘 서얼

참 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어야 한다.

리카르도 페레즈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성경을 연구한 결과 가족과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의 조상 전래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이런 행위는 1954년의 과테말라에서는 어리석은 일같이 보였다. 그러나 리카르도는 이전에 배운 것 중에서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면서 그는 과오를 뒤에 버려 두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교회를 찾기를 원했다. 그는 진리를 알기를 원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알아보았으나 “고대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성경 연구를 통해 참된 교회는 몇 가지 틀림이 있을 수 없는 특징...에를 들면 살아 계신 예언자, 사도, 침수에 의한 침례, 회원에게 합당하게 성찬을 집행하는 것 등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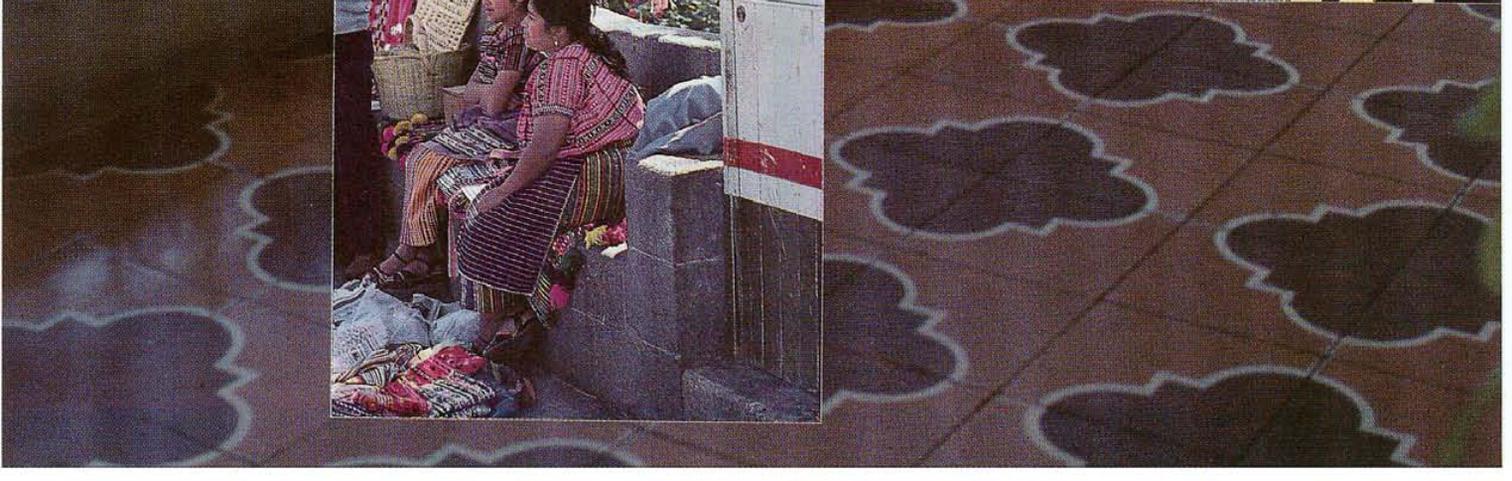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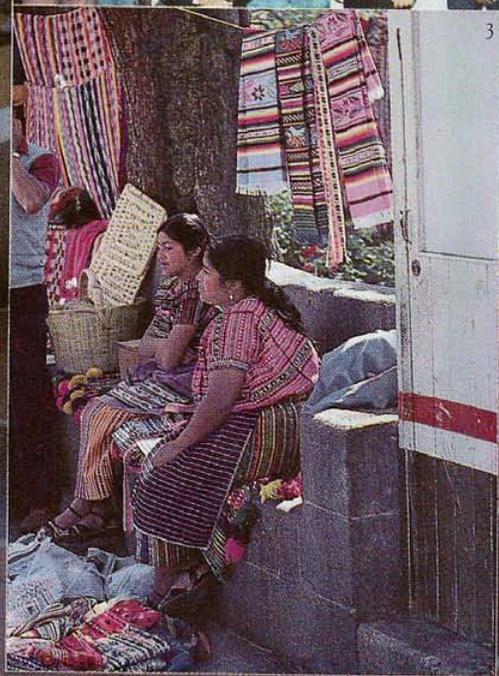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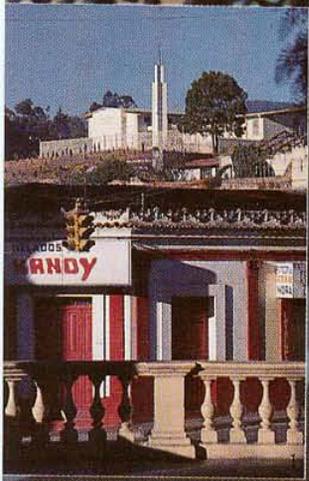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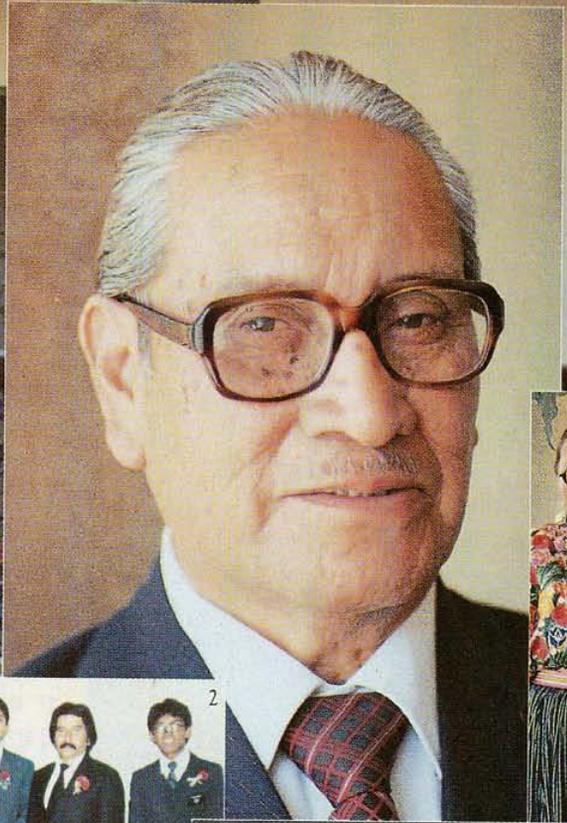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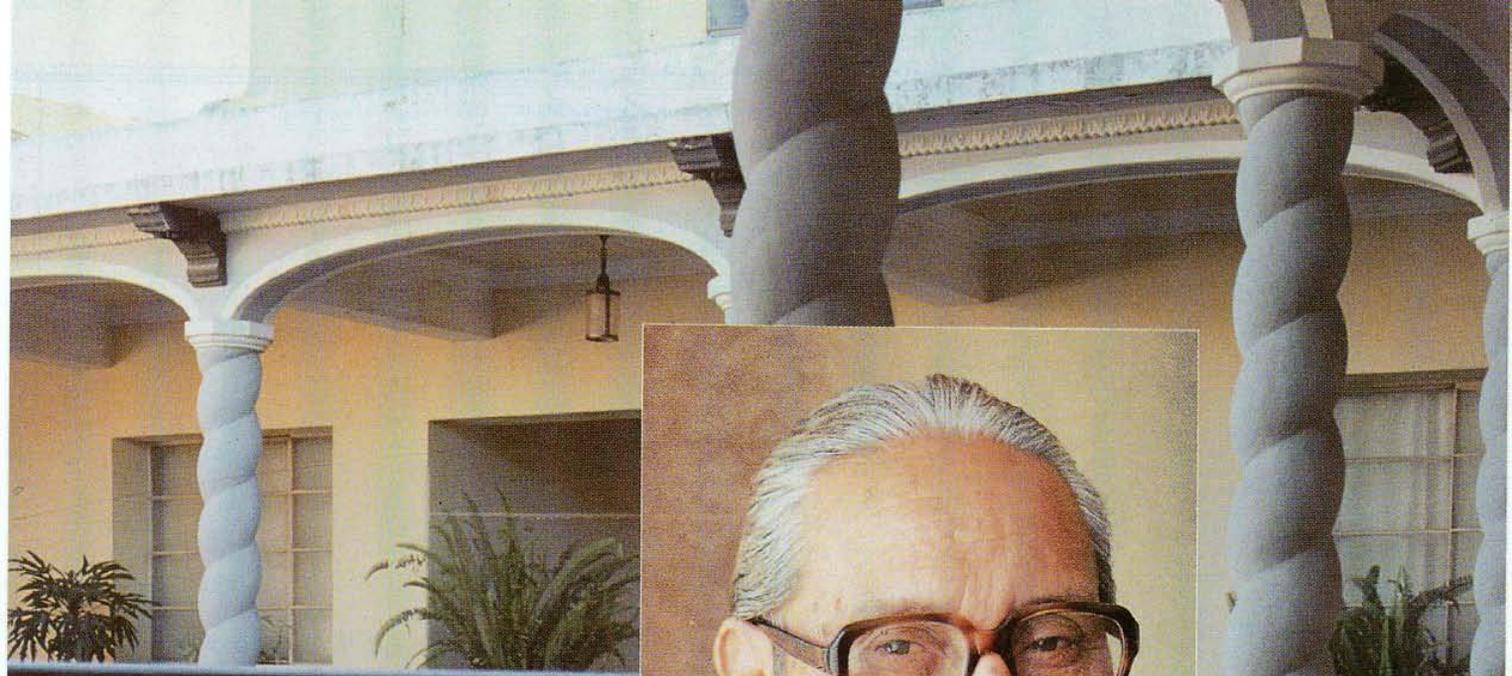
그는 새 성경을 살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마침내 그가 찾던 교회로 가게 되었다. 리카르도의 양복점 직원 한 사람이 그에게 “몇몇 젊은 복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은 성경을 팝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그 가게의 문 옆을 지나갔다. 그 직원은 “저기 그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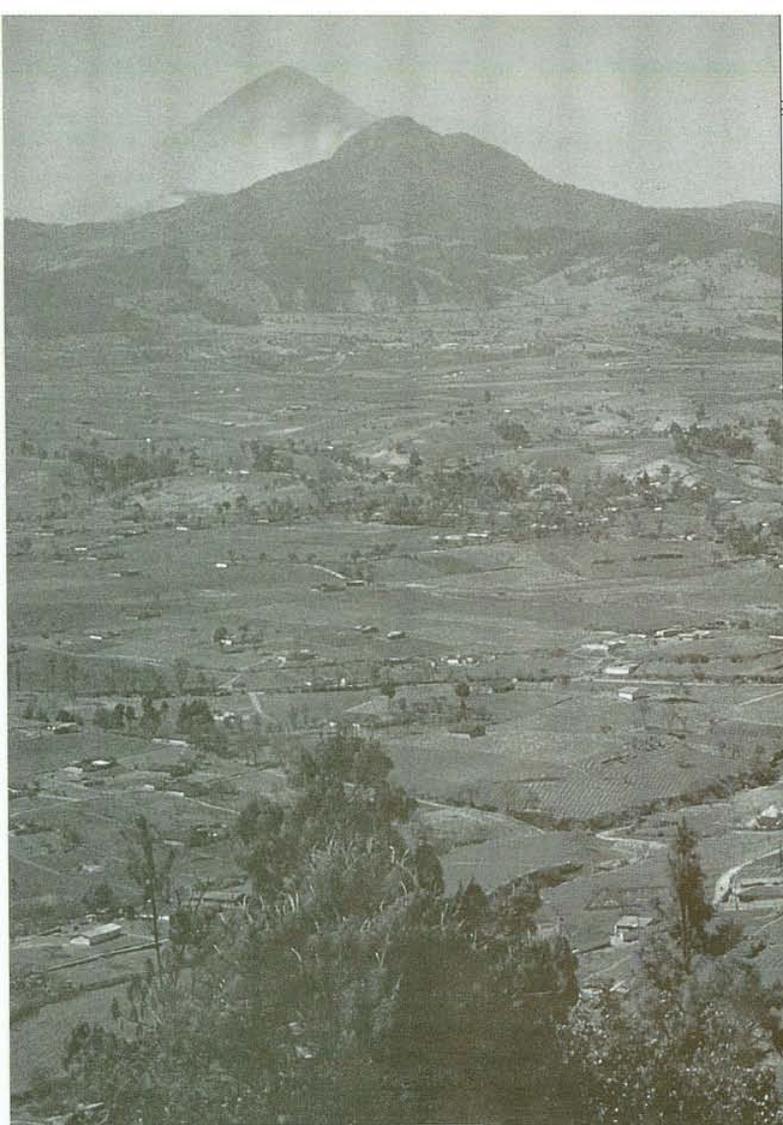
팝니다.”라고 말했다.

그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뿐 아니라 몰몬경이라는 책으로부터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가 읽었다면 몰몬경을 한 주일 동안 그에게 두고 가겠다고 말했다.

페레즈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보다 많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 책에서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그 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1. 케잘테낭고 서 스테이크 센터. 2 페레즈 가족. 3 과테말라 시장. 4 예전의 페레즈 형제 자매. 5 최근의 페레즈 형제 자매. 6 딸 안젤리나. 7 아들 이스라엘은 과테말라시의 과테말라 지역, 지역 대표로 일하고 있다.





나는 때때로 몰몬경의 일부 사건을 읽기 전에 꿈을 꾸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읽어 보면 이미 꿈에서 본 것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페레즈는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것을 모두 또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으며 그의 자녀들도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고대 교회에 관한 성경 연구에서 십일조의 법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자기 수입의 십분지 일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주님께서 우리가 십일조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회원이 될 거요.”

그의 자녀와 아내는 침례를 미루는 것에 관하여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 주었다. 당시 십대 소녀인 딸 안헬리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가입하고 싶어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특별한 생일 선물을 계획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선물은 그들이 아버지의 생일에 아버지와 함께 침례받는 것이었다.

이그나시아 페레즈를 납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도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 꿈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녀가 마실 물을 한 컵 주었다. 안헬리나의 권유로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 꿈에 본 그 컵이 성찬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선교사들과 복음 공부를 했으며 마침내



페레즈 가족이 인봉받은 아리조나 성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 생일에 당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그러나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예요.” 그는 곧 승낙하였으며 그 순간 그들이 단순히 십일조를 낼 방법을 찾으리라고 결정했다. 곧 그는 그것이 상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페레즈 부부와 세 명의 큰 자녀…안헬리나, 호르헤, 테레사…그는 1954년 1월 26일에 침례받았다. 그들의 아들 이스라엘과 빅토르는 아직 침례받기에는 너무 어렸으며 그들의 막내 아들인 호수에 리카르도는 페레즈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된 후 삼 년이 지난 뒤에 태어났다.

리카르도 페레즈는 자신의 새로운 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수많은 지도자 직책을 맡게 되었다. 페레즈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과테말라 고원 지대의 마야족 후손이며 처음 교회 회원이 되었을 당시 약 육 십 리 떨어진 산에 있는 주로 인디언 지역 사회인 토토니카판에 있는 지부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족을 데리고 갔다. 페레즈 형제는 나중에 케잘테낭고에 있는 지부의 지부장을 세 번 역임하고 지방부장단 보좌로서 지방부 평의회 평의원으로서 또 감사자로서 봉사했다. 한달에 네 번 있는 주일만으로는 감사 업무를 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가 흔히 있었으므로, 평일에 외딴 지부로 여행했다.

페레즈 형제, 자매는 1965년 아리조나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페레즈 자매는 집에 남아 있었던 자녀도 함께 인봉받게 될 것을 원하여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기도했다. 그 응답으로 그녀의 토티야 사업이 확장되어 삼 년 후 다시 성전 방문 여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 페레즈 부부는 결혼한 자녀도 함께 인봉 받도록 하는 일이 다급하다고 느꼈다. 페레즈 자매는 도움을 주시도록 다시 기도했으며 다시 그녀의 토티야 고객의 수가 늘었다. 그로 인하여 생긴 돈은 나머지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성전까지 여행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75년 페레즈 형제는 새로 조직된 케잘테낭고 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부름받았다.

페레즈 가의 자녀도 그들의 부모처럼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바쳤다. 안헬리나는 지부, 와드, 스테이크에서 여섯 번 상호부조회 회장을 했다. 호르헤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이외에도 과테말라 케잘테낭고와 멕시코 메리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테레사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다. 이스라엘은 케잘테낭고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빅토르는 케잘테낭고 서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이다. 영 리카르도는 과테말라 케잘테낭고 선교부장의 보좌이다. 페레즈 가문의 제삼 세대도 지금 똑같이 봉사의 전통을 뒤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페레즈는 자기 부친이 지속적으로 또 자주 경전이나 기타 교회 서적을 읽고 연구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그의 부친이 그들 자녀에게 물려 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외에도 아마 교육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테말라의 공립 학교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학교와는 달리 십 이학년 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페레즈 형제는 그의 자녀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이 실제 직업에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반드시 알게 했으며 그들이 한 가지를 택하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페레즈 부부는 자녀와 매우 가깝게 지낸다. 페레즈 가족은 자주 함께 만나 활동을 하면 언제나 기도로 활동을 끝낸다.

리카르도의 막내 아들은 부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훈계를 듣는 것이 기쁩니다.” 그들의 부친의 훈계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자녀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페레즈 형제는 보통 “나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페레즈 형제는 자녀의 충실함을 자신의 공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또 아내가 우리 자녀를 돌보고 가르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들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마리아 라모스

그 여름의 일요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햇볕 대신
음울한 구름이 우리 아들의 침례일에 비를 약속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호수로 가기 위하여 차 안으로
기어오르면서 “정말 8월 같이 느껴지지 않는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호숫가에 모였을 때 우리는 모두 햇님이 우리를 축하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다. 남편 호세가 자랑스런 미소를 띄면서 데이비드를 조용한 물로 인도했다.

나는 남편이 침례 기도문을 말하고 우리 아들을 조용히 물

속으로 뉘이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나도 데이비드가 물 밖으로 나와 새 생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지었다.

우리 어린 아들은 강둑으로 걸어 나와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우리가 그를 수건으로 감싸고 닦아 주게 했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나와



우리 교실에 깃든 차분한 분위기

내다인 도일

몇년 전 나는 학교에서 매우 다루기 어렵고 말썽 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났으며 매일 학교를 떠날 때마다 우울해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어떤 여성이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에 차분한 분위기가 깃들도록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성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기도의 권세를 알았으며 나는 그녀가 내가 할 바를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그녀의 기도에 대하여 말하도록 성신의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그런 문제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자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여 도움과 영감을 간구했다. 몇 주 지나는 동안 실제로 교실에 차분한 분위기가 깃들었으며 내가 어린이들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망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여전히 있었으나 그런 순간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계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6~7)

성신은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 생애에서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구세주의 계획에서 기쁨을 찾음

윌마 가드너

1975년 9월 국제 연합에서 여성을 위한 십 년 기간을 선포한 직후, 어떤 기자가 말일성도 여성에 대하여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 여기자는 “당신은 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여성은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시선이 마주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야, 마침내 제가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행복과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는 마치 꿈꾸듯이 내 마음은 의사들이 우리의 새 아들 데이비드가 살 수 없다고 말한 팔 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그를 팔에 안아 볼 기회도 갖기 전에 나의 가장 큰 소망의 성취를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가혹한 상황에 몸부림쳤다. 남편도 나의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는 희망의 원천을 하나 찾았다. 나는 의사보다도 더 힘있는 어떤 분으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점차 우리 가족의 생활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달 반 후 의사들은 데이비드의 상태가 아직 심각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했다. 남편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데이비드는 집으로 온 지 두 주 후 다시 입원해야 했으며 의사들은 우리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했다. 이런 우울한 순간에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가 왔다. 남편이 동료 한 사람에게 우리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두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줄 권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에게 신앙이 있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만일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 집에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며칠 후 그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왔으며 복음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몇 주일 이내에 남편과 나는 모두 물론경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받았으며 우리는 침례받았다.

나는 우리 아기를 형제들의 손에 놓고 그들이 아기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첫번째 축복을 주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축복이 주어진 순간으로부터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아무 것도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축복이 있는 지 며칠 후 나는 데이비드를 진단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데려 갔다. 의사가 데이비드의 엑스레이 사진을 조사할 때 나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내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폐가 말짱하군요. 병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라고 소리쳤다.

나는 눈물고인 눈을 깜빡이며 “예, 정말 기적입니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부터 데이비드는 정상적으로 자랐다. 그의 간증 역시 자랐으며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알게 됨에 따라 강화되었다.

지금 그의 밝게 빛나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주님이 우리 아들을 위하여 매우 특별한 과업을 계획하셨음을 느낀다. 데이비드는 자주 장래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가 침례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온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게 해주었다. □

나는
실망과 눈물에 젖어
매일
학교를 떠났다.

레니슨스 그림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난처하고, 민망스러움을 느꼈으며 확실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으며 나 스스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현재 나는 그 기자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나는 그녀에게 복음이 참된 것을 알려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독특한 책임이 있는 계획을 따름으로써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자나 가난한 자, 직장에 다니든 집에 있든, 여성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 세상에 품위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기쁨을 찾게 된다. 이것이 참된 것인 줄을 알면서 왜 우리는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해야 하는가?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악기의 줄을 팽팽하게 조여 우리의 선율이 아름답게 울리게 합시다. 우리의 음악이 우리 내부에 조용하게 있는 상태로 죽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향하여 자신있고 영광스럽게 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소중한 지상 생활의 시간을 활용합시다.”(여성의 선택,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4년, 97페이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생이 계속되는 동안 자기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음악을 장악하거나 불쾌한 소리로 그 음악이 덮이게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구세주만 찾으면 된다. 우리에게 우리의 잠재 능력을 알게 하시고 덕스러운 여성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찾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

보상받은 그 긴 시간

샤론 드모단트

나는 자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건하게 있게 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애쓴 것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만 일곱 살의 데이비드, 곧 네 살이 될 제프, 한 살난 웨이드는 잠시 앉아 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킁킁거리고 속삭이고 싸웠다. 매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경건해지게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교회에 가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쫓으면 피곤하고 좌절감에 푹 빠져 있기가 십상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내가 계속해서 벌을 준 것이 아이들에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한 것은 아닌가? 나는 다음 금식 주에 경건에 관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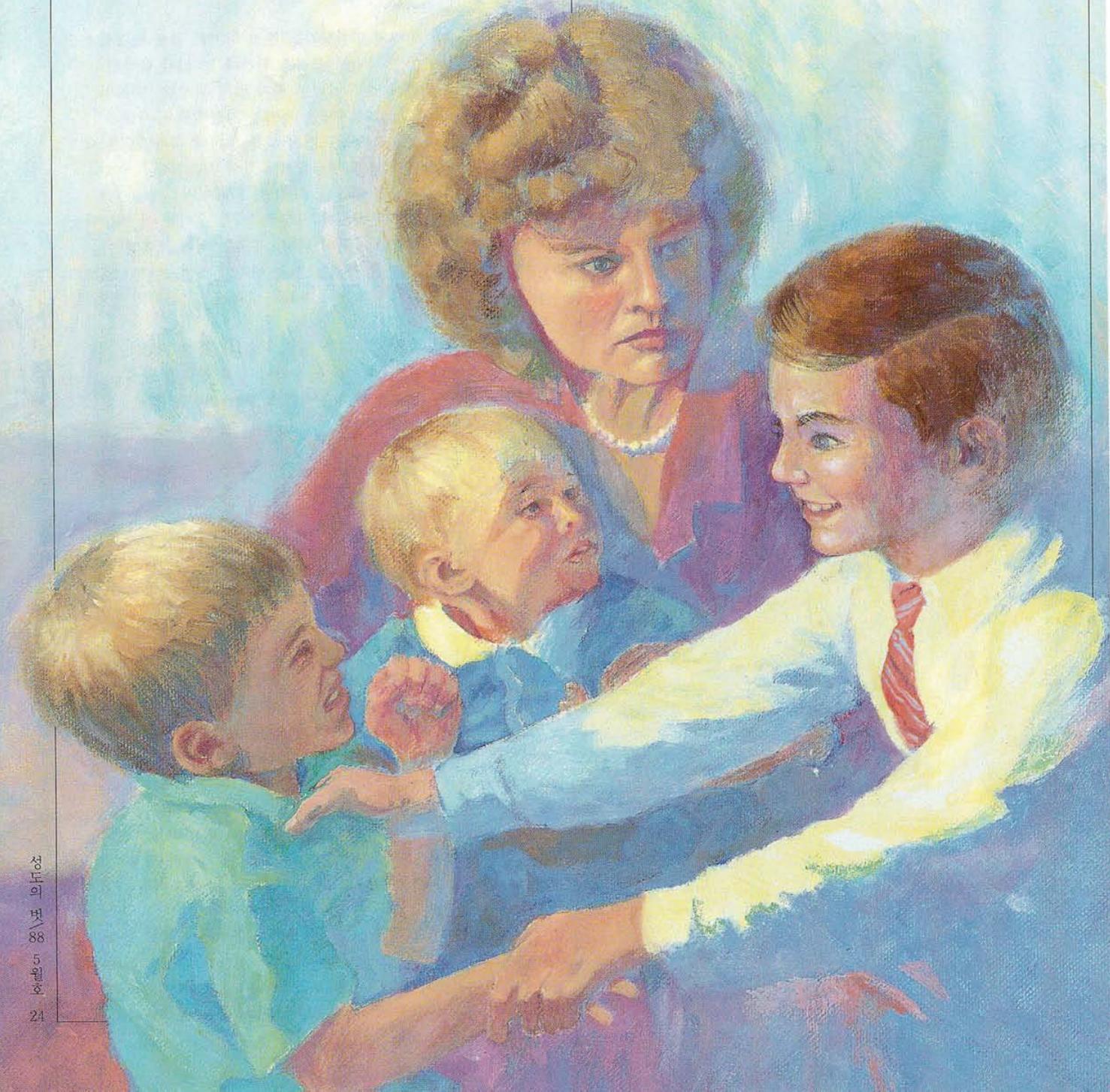
그 일요일에 오 분도 지나기 전에 또 데이비드를 예배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즉시 짧게 기도드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겠으나,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간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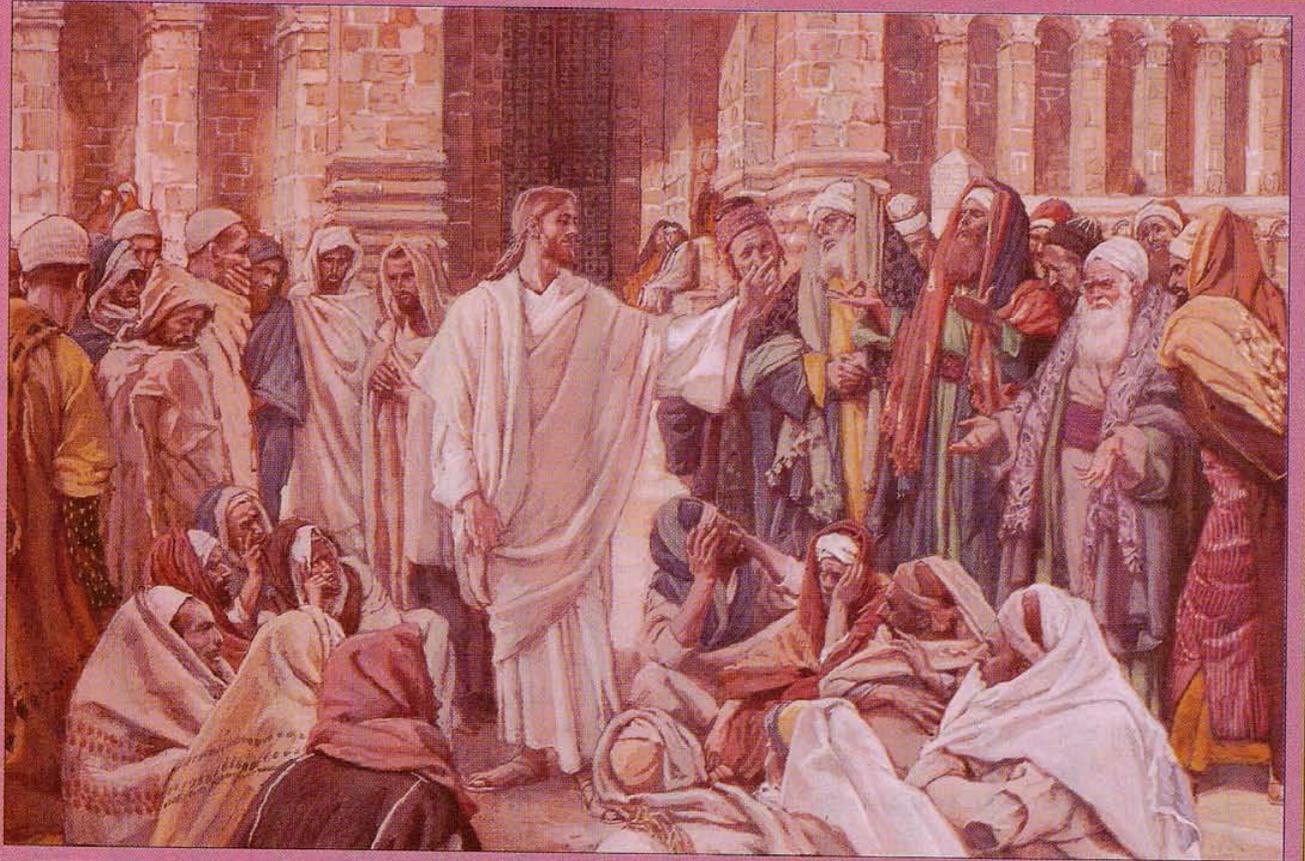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은 “참으라. 진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 주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느낌에 순종하려고 애썼으며 이전보다 아이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임이 끝날 무렵 데이비드가 간증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만일 내가 처음에 느낀 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그는 영이 간증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영을 따른다면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간증을 키우도록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 경험을 기억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벌할 때 좀더 온화해질 수 있었으며 화가 날 때에도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다. □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회개의 과정

래리 티페즈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벧전 4:17)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 권세있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가 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보응이 세상 주민에게 속히 임하리라...이 일은 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교성 112:24~25) 주님은 어떤 종류의 심판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왜 경전에서는 깨끗이 하는 일이 악한 자들에게서보다 교회에서 시작되리라고 말하는가?

경전에서는 주님께서 걸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심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참으로 큰 노여움과 비난을 퍼부으실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세주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걸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태복음 23:26~17) 물론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로나이도 이와 비슷하게 기록했다. “먼저 그릇의 안을

깨끗이...뉘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엘 60:23)을 적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런 경도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별로 남겨 두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페이지)

벤슨 대관장은 그릇 안을 깨끗이 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교만은 변화하여 발전하려 하지 않고, 합리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 합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겸손한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페이지)

그는 또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분야를 밝히었다.

1. 성적 불순결을 그는 “이 세대에 풍미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말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혹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천”이라고 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페이지)

2. 경전 특히 물문경을 등한히 함. 그런 태도로 인하여 “교회가 정죄받게” 되며 또 “시온의 자녀 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페이지)

3. 교만함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하기를 원함. 벤슨 대관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이라고 규정지었다.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페이지)

그릇의 안을 깨끗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째 과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당한 또는 좀더 심각한 약점은 지나쳐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을 보지 못할 때가 흔히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성격상의 결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고자 애쓰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흔히 있다. 주께서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되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것을 생각하신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해서는 안된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자기의 이상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다해, 매일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구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빛과 지식과 예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영을 구하도록 생활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이끄는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복음의 표준, 184~85페이지)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주셨다. 어느 날 내가 가르치는 신학 연구원 반에서 우리는 반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열거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에 대한 느낌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한 학생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독특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더서 12장 27절을 인용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

우리가 회개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을 찾아 보기 위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가 얼마나 진보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볼 수 있다. 우리 학생이 지적인 대로, 우리는 또한 겸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보여 주시고 그러한 약점을 장점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의 약점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께서 권고하신 대로, 향상하기 위한 길을 취해 나갈 수 있다. (용서가 낳는 기적, 213~15페이지) 그러한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은 구원과 영생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치 못해 깨끗해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회개하고 향상시킬 때, 우리는 가족이 함께 향상해 나가며, 우리의 생각과 가정을 순결하게 할 목표를 설정하고, 경전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여,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방법을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와드, 스테이크, 지역 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정원회, 조직 및 공과 시간에 같은 과정을 따를 수 있다.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및 그러한 면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열거할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회개는 경전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우리가 이 말일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영감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상적인 가르침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 또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겸손을 키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관심을 돌리게 해줄 수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인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된다.

나는 언제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지지해 왔으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벤슨 대관장에 관한 그런 개인적인 증거는 1986년 4월 5일 토요일 아침 가족과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연차 대회 제일 총회를 보고 있을 때 받은 것이다. 벤슨 대관장이 말씀을 마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은 분명히 말일성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듣고 순종하는 즉, 그릇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

래리 티페츠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 강사이다. 그는 샌디 유타 그래니트 뷰 스테이크 그래니트 제일 워드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자신	가족	교회
성적 불순결	부적합한 책을 읽지 않고 관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므로써 나의 생각을 깨끗이 함.	부도덕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주의깊게 선정한다.	품행과 말씨와 복장에 있어서 정숙한 것에 관한 특별 공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원회 청소년을 강화시킨다.
경전을 소홀히 함	매일 취침 전이나 점심 시간에 10~30분간 경전을 읽고 느낀 것을 일지에 기록한다.	일요일에 한 시간은 가족 단위로 몰몬경을 읽는 시간으로 정한다.	경전 공부를 권장하기 위하여 정원회 독서 도표를 만든다.
교만	자신이 좀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아내와 자녀의 제언에 대하여 좀더 마음을 열어 둔다.	우리의 금식 경험을 향상시키고 궁핍한 사람에게 더 많이 기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족 토론을 한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개신교 신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려하며 그들이 그 동네와 또 워드의 친목 활동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준다.

기도에 대한 응답

아텔 리스

나는 어렸을 때, 대역섯 살쯤 되었을 때 우리 대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십일조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나에게 십일조는 우리의 모든 수입의 십분지 일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내가 모든 돈을 꺼내서 주님께 바칠 것을 계산했다. 그런 다음 그 집에서 유일하게 문에 자물쇠가 있는 방인 화장실로 가서 욕조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바닥을 위로 하여 동전 서너 개를 손에 쥐고 주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기를 청하였으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한동안 주님에게 간구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그 돈이 여전히 손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보다 더 큰 거부감을 느낀 아이는 없을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주님은 우리 부모님과 형들로부터는 모두 다 십일조를 받아들이셨는데 왜 나의 십일조는 받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무릎을 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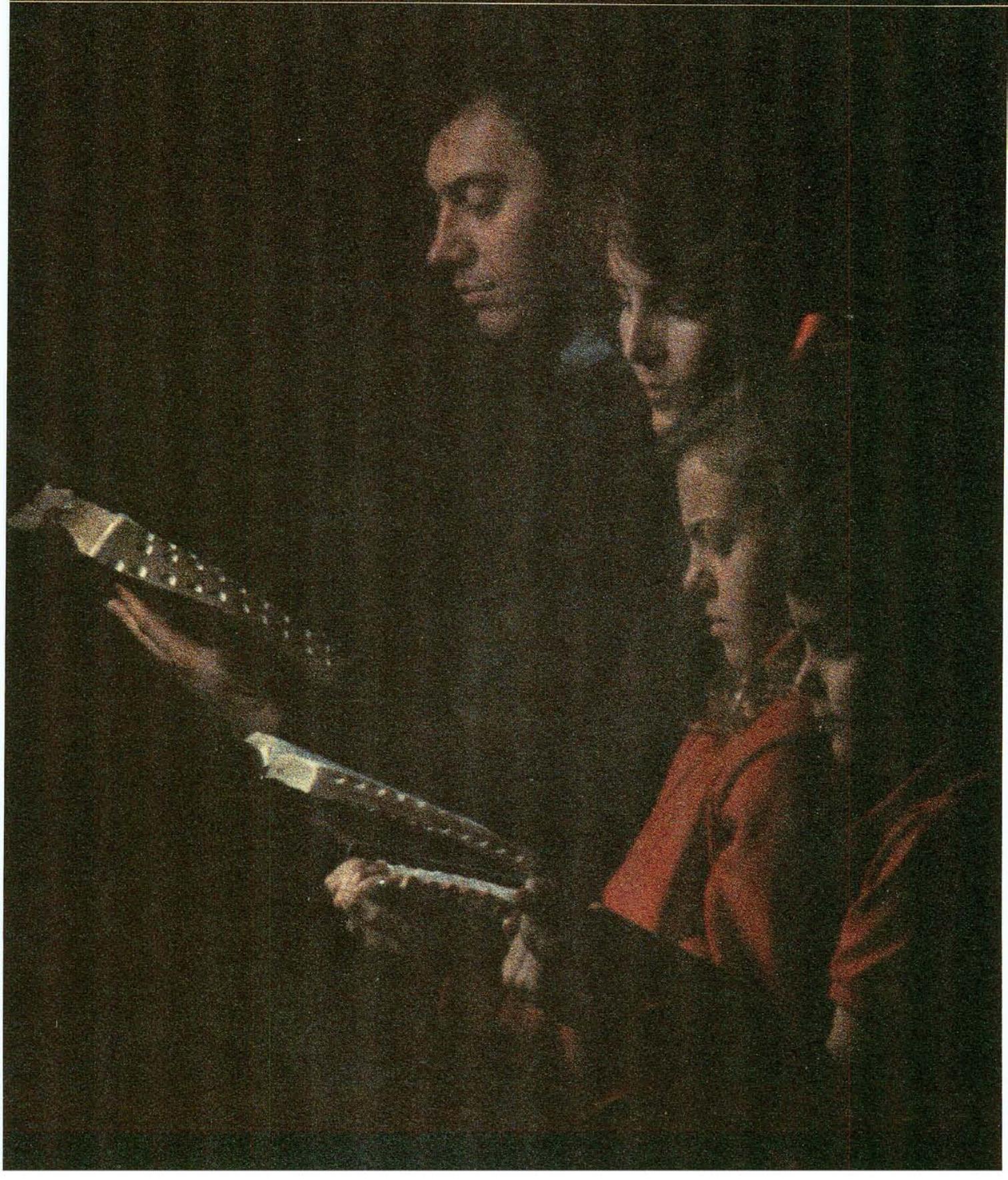
일어서면서 나는 너무나 자신이 함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주님만이 알고 계셨다.

며칠 후 나는 초등학교에 참석했다. 선생님이 공과에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주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십일조를 내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십일조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그분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 일의 추억이 나에게 너무나 신성했기 때문에 삼 십 년 이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육 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음성이 떨린다. 그 훌륭한 선생님이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한 어린 소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몰랐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

연구와 신앙으로 배움

가족 단위로 함께 복음을 배우면 사랑과 감사의 기초를 쌓게 됨



연구와 신앙으로 배움

말 일성도 부모는 가족이 함께 경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함께 복음 공부를 하는 것은 가족 내에서 사랑과 감사의 느낌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진리의 기초를 놓게 되어 자녀가 일생 동안 그 위에서 커 나갈 수 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어린이는 경전 공부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 부모는 성공할 것을 결심하고 약간의 창의적인 준비를 한다면, 가족이 모두 경전 공부를 기쁘게 생각하게 되고 복음 공부를 습관적으로 생활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준비에는 우리 스스로가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언제나 가장 좋은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부모는 그들의 권고의 말씀을 강하게 해주는 모범의 힘을 갖고 있다. 물론 정기적으로 복음을 공부할 시간을 찾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볼 것인가 또 교회, 학교, 지역 사회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의 선택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좀더 일찍 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의 일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복음 연구를 우리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든지 그 보상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미치게 하는 그 빛, 곧 복음의 이해는 우리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복음 연구를 위한 네 가지 중요 사항

1. **헌신.** 우리가 일단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되면, 그 과제가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이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든 또는 정기적인 복음 연구를 하는 것이든 우리의 성취욕이 그 과제를 좀더 쉽게 해준다. 가족이 함께 경전 공부하는 방법을 토론해 본다. 그런 다음 일단 가족이 어떤 계획에 동의하고 나면 가족 각 개인으로부터 그 계획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노력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2. **지속성.** 정기적으로 훌륭하게 계획하여 행하는 활동은 준비없이 이따금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것은 배움을 장려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큰

간섭을 받지 않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가족이 경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3. **개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현명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곁에 불러 모으고, 함께 경전을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한다면, 가족이 모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5페이지)

두 가족이 같은 상황하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일은 결코 없으므로 복음 공부하는 방법도 모든 가족에게 적합한 단 하나의 방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또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가족은 그들이 복음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둔 어떤 가족은 저녁 식사 시간 동안이나 식사를 마친 뒤, 취침 전 시간, 주말에 복음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모두 별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학교나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 가족 식사를 함으로써 마침내 해답을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함께 하고 복음 원리를 공부할 수 있었다. 행복한 아내이며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뜻깊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우리의 가족 복음 공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좀더 잘 이해하고 그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4. **다양성.** 가족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는 그들이 행하는 것(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하는 등)을 가장 잘 기억하며 그 다음이 보는 것(그림, 필름스트립), 그 다음이 듣는 것(읽기, 녹음)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모두 한 역할을 맡아 연기해 보고 또 경전으로부터 한 구절을 읽어 보충할 때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연구 방법

1. **소리내어 읽는다.** 자녀들은 부모가 읽어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경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브리감 영 대학 영어 교수로 재직 후 은퇴하여 현재 런던 성전의 아서 헨리 킹 성전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자녀에게 읽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듣는 음성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능한 한 빨리 자녀에게 경전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어린 음성으로 경전 말씀을 듣는 어린이는 그 사랑을 통하여 경전을 이해하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전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기 부모의 음성을 통하여…주님의 음성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풍요한 마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6년, 221~22페이지)

우리는 경전을 하나 하나 차례로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하여 읽음으로써 공부할 수도 있다. 또는 자녀가 어릴 때는 경전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 줌으로써 경전 말씀에 그 “사랑하는 음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께 경전 공부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전 말씀이 더욱더 우리 자녀에게 친숙해지고 경전을 좀더 잘 이해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2. **암송한다.** 소리내어 읽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경전 구절을 선택해서 외우는 것이다. 어린이는 간단한 구절을 암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취로부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찾아 본다.**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의 정의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 보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 경전 구절을 주제별 색인에서, 지리적인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녀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알게 되면, 경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며, 그것을 자기 생애의 뜻깊은 부분으로 삼게 된다.

4. **테이프에 녹음한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가 녹음해 줄 수 있다. 이 방식은 바쁜 부모에게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는 사람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다.

5. **토의한다.** 교육자들은 오늘날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을 소리내어 표현하기를 어려워할 때가 많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족 토론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키워 주는 한편,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대단히 훌륭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다음과 같은 것을 토의할 수 있다.

- 교회나 세미나의 공과반에서 배운 공과의 개념과 내용
- 성찬식이나 대회에서 행한 말씀
- 성도의 빛에 실린 기사
- 건전한 주제를 담고 있는 시, 이야기, 서적

— 복음과 관련된 시사 문제

6. **함께 나눈다.** 가족이 각자 자신의 언령과 능력에 따라 자신이 복음에 관하여 배우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기회를 준다. 다음에 이 방식을 성공적인 가족 복음 연구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 줄 것을 자녀에게 부탁한다.

— 가족 한 사람이 어떤 복음 주제에 대하여 짧은 말씀을 준비하도록 부탁한다.

— 가족 한 사람이 경전이나 교회 역사로부터 한 가지 좋아하는 이야기를 택하여 나머지 가족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 만일 가족 중 교회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이 있으면, 공과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하는 것을 가족을 상대로 실습하도록 권한다.

7. **가족 연구 활동을 계획한다.** 가족 활동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들어 본다.

— 가족이 복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나 시를 써서 가족 기록서에 철하게 한다.

— 표준 경전에 있는 사람, 사건, 원리를 활용하여 질의 응답 게임을 한다.

— 경전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복음 원리를 실천한 것에 대한 그림, 점토나 종이로 만든 모델을 전시하는 가족 미술관을 시작한다.

— 노인이나 비회원과 함께 나누기 위한 가족 노래, 경전, 이야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가정의 밤을 활용함

복음 공부를 위한 자연스런 환경은 가정의 밤 시간이다. 자녀가 일단 복음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알고 나면 다른 시간에도 공부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물리학, 수학, 기타 학술적인 주제와는 달리 복음 공부는 사실만 연관된다면 효과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복음 공부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가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지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목사의 고별사만이 기억에 남아 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리 프루인이 허민 비 호민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

여러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의자나 장소가 있는가?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이 생각되는 오래된 흔들 의자가 있다. 그 의자에 앉으면 어린 시절의 자유와 성숙하게 성장한 느낌과 현재와 미래의 좌절에 대한 답을 감지하게 된다.

나는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즐긴다. 어느 추운 겨울 밤 차디찬 성애가 창문에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보는 동안 옛날 순간이 생각났다. “데이비드! 보이드! 집으로 와! 식사 시간이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내는 나에게 함께 아이들을 찾아 보라고 했다.

“데이비드! 보이드! 대답해! 장난 그만 해! 어디 있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우리의 음성은 점점 커지고 걱정이 되었다. 만 삼 세와 사 세의 데이비드와 보이드는 미쉬간주, 매니스터에서 매니스터 강 옆의 체육 번지에 있는 우리 집 뜰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내 시야에서 벗어난 지 불과 십 분밖에 안되었을 때 사라진 것이었다.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찾았으나 헛수고로 끝났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찰에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30분 이내에 경찰, 소방대, 소년단, 친구들이 무리지어 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경찰관 한 사람이 “주립 경찰에 전화해서 독일 세퍼드, 세이버를 데려 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목꾼을 단단히 잡힌 채 세이버가 도착했다. 그는 아이들 침실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 그들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조련사가 세이버의 머리와 코를 그 소년들 옷으로 문질러 주었다.

개 조련사가 “목꾼을 풀어 줘!” 라고 명령하자 그 큰 개가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그 개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자 그는 “아이들을 찾아내, 세이버!”라고 소리쳤다.

세이버는 집과 뜰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닌 다음 길을 건너 작은 숲지대로 돌아간 후 남쪽으로 급히 방향을 돌렸다.

나는 그 경경 짚는 개를 따라 달려가면서 “아니야! 저 강은 아니야!”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손살같이 달려 바로 강둑 위까지 도달했으며 우리 두 사람 다 그곳에서 얼음 위로 약 30미터가량 걸어진 작은 네 개의 발자국을 보았다. 말없는 증거가 그곳에 있었다. 그 얼음 속에 큰 구멍이 있었으며 차고 검은 물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었다.

빠진 것인가? 죽은 것인가? 우리 죄없는 두 아들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피하여 돌아서서 나의 형과 아버지를 향하여 곧바로 달렸다.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벗어나 달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라고 소리쳤다.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기진맥진하여 마침내 넘어졌을 때 약 30킬로미터를 달렸으며 몇 년 전 나와 친하게 지낸 어떤 오래된 친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는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강으로 돌아갔다. 경찰 잠수부가 쓸쓸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고 어두운 물 속을 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매 순간이 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세 시간 동안 수색한 다음 마침내 한 사람이 “한 점 찾았다!”라고 소리쳤다.

한 어린 사람이나 한 아이가 아니고 숫자로 치다니. 나 자신의 살과 피를 물려받은 부드럽고 따뜻한 육신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작은 시체가 기다리고 있는 보트 위로 올려졌다. 오른손을 뻗치고 손가락을 꼭 쥐어 붙은 모습이였다. 그는 데이비드였으며 그의 얼어 붙은 시체가 그 비극을 이야기해 주었다. 둘 중에 모험심이 더 많은 보이드가 먼저 가서 얼음을 깨뜨리고 빠진 것이다. 데이비드가 그를 구하려고 따라가서 손을 뻗쳐 잡으려고 했다. 두 사람 다 물 속으로 들어갔으며 얼어 붙은 물 속에서 죽음이 금방 닥친 것이다.

고통스러운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다음 “두 점 찾았다!”는 고향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탄에 싸였다. 그 이후 며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장례식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비몽사몽을 헤맸다. 장례식

동안 목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별사를 한 것 이외에는 무슨 말이 있었는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나는 이해해야 했다. 그런 말은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죄없는 어린이를 죽이는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친구가 아니었으며 나는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때로는 비극으로 결혼 생활이 강화될 수도 있으나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원망으로 가득 차서 어떤 종류의 관계도 맺을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이혼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을 배척했다. 분노가 나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모두 다 채웠다.

나는 내 앞에서 교통 규칙을 어기고 회전한 운전수를 길가로 끌고 간 다음 때려 눕혔다. 또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내 옆구리를 찌른 스키의 주인인 키가 이 미터나 되는 사람에게 대들었다. 나의 악행에 대한 법적 소송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부채도 늘어났다. 나의 생활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적인 도피 수단을 택했으나 여전히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 그 끔찍한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의 생애와 행복의 기회를 망쳐 놓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다. 완전히 좌절에 빠진 나날이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재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으나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퇴근하여 집에 온 후 문간에서 두 젊은이를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지른 다음 한 사람의 뒷덜미를 거머쥐고 내 땅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위협했다. “두 번 다시 이 근처에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즉시 내 땅을 떠났다.

나의 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 사건은 곧 잊혀졌다. 그 다음 주 아내와 함께 막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으려는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간에 나가 보고 일주일 전 내

땅으로부터 나가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두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말을 꺼낼 기회도 없이 그중 한 사람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매우 진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생님께서 전해 드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선생님께서 그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의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한 어조에 놀라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가 분노와 악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에게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내 마음에 반응이 있었다.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는 것이 몹시 기다려졌다. 내 영혼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등과 같은 의문에 대한 답에 굶주렸다. 그 선교사들은 경전을 사용하여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갈망에 가득 찬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해답받지 못한 의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비록 우리 어린 아들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그들은 지상 생활의 특권을 누렸으며 이곳에 올 것을 택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빠져 죽게 버려 둔 복수심에 넘친 하나님의 희생자가 아니었으며 우리 아들 데이비드와 보이드로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생은 그들의 영원한 진보에 있어서 단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훌륭한 개념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나 증오의 눈물이 아니다. 사랑과 이해의 눈물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런 새로운 지식은 나의 생애를 바꾸어 주었으며 나는 믿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섰다. □



부활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

창 세 천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희생시켜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려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에녹에게 밝히셨...입니다. 이 계획으로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온 인류의 부활, 곧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되었...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83페이지)

여러분이 끝까지 충실할 때, 여러분이 잃은 모든 것은 부활 때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현으로 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죽음보다 멸망에 대한 상념입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친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내 가슴은 순식간에 터져 버릴 것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나의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는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모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더욱 큰 즐거움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이셨고 부활의 교리도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땅에 묻거나,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에 묻거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마음 속에 새겨서,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0페이지) □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목적 : 자만하지 않은 채 의를 추구함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 성취, 친분, 의로움에 잘난 듯이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 : 11~13)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 : 14)

그 바리새인은 두 가지 큰 과오를 범하였으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뽐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심판관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자랑”은 교만의 죄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 온유함, 순종, 또는 온순함입니다. 교만에는 큰 저주가 따릅니다. 겸손에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페이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말에 불쑥 끼어들든지 집회나 공과나 공연 도중 속삭인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약속에 늦는다면 우리의 시간이나 다른 활동이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달성하지 않은 것을 자기 공으로 돌린다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잘 되면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물질적인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경전에서는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든 활동 심지어는 숨쉬는 것까지도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참된 겸손이 우러나옵니다.

그러한 겸손은 우리가 구세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따르도록 격려해 줍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런 철학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4년 4월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은 직후, 어떤 가족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집 앞에 주차시킨 차에 경호원이 있는 것을 보고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 반대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직책을 봉사할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고전 13 : 4; 모로 7 : 45)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암몬이 말한 것처럼 말하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엘머서 26 : 12)

그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의 구속을 통하여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데려 가는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을 돕기 위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교사 유의 사항

1. 우리가 “만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2. 방문 교사나 방문받은 자매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집중하는 것을 배운 방식에 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눈다.

(가정의 밤 자료집, 23~26, 48~51, 58, 98~101, 106~8, 196~97, 242~44페이지를 관련 자료로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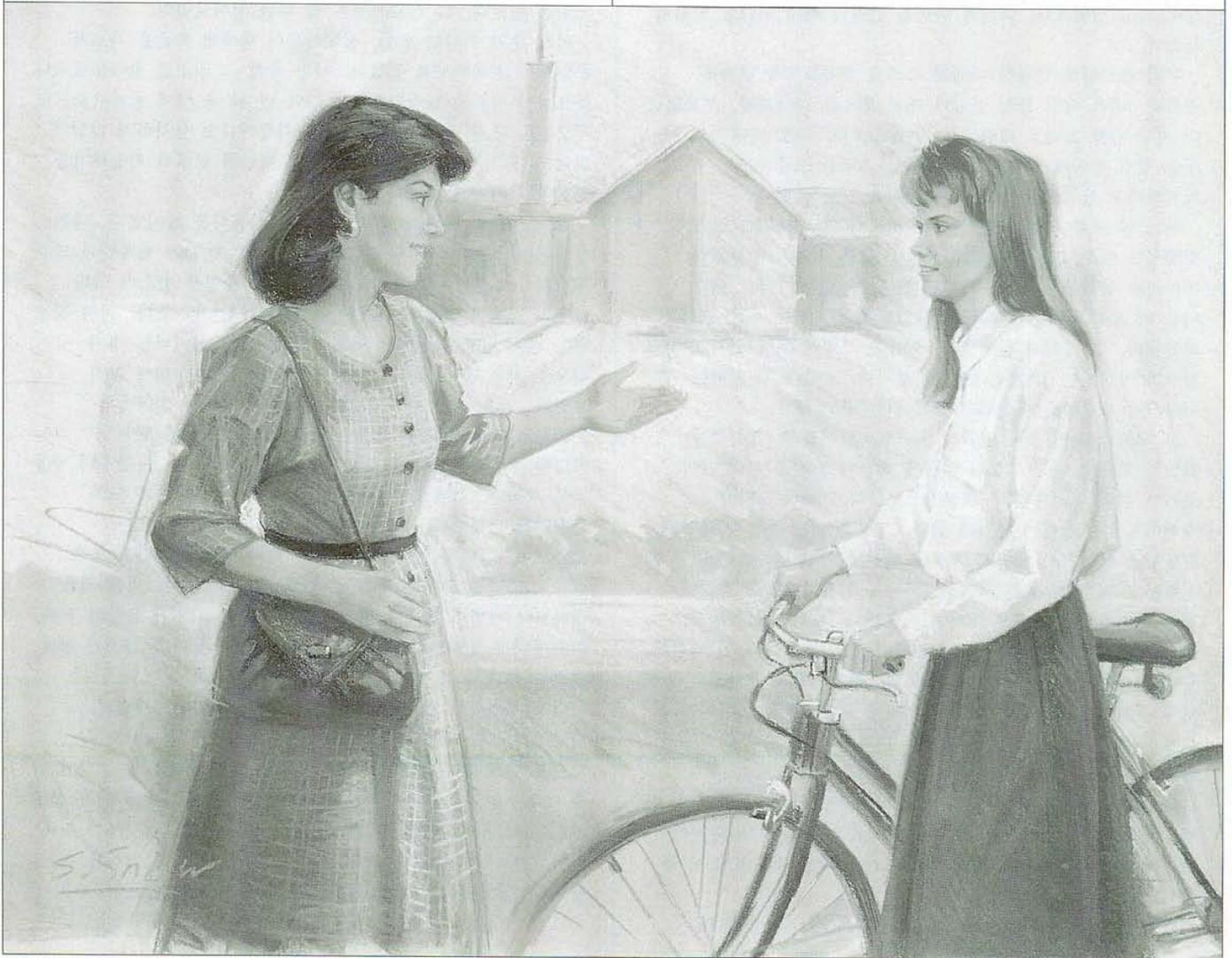
나의 추구의 종말

캐롤 세이어즈 플우드

우 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자녀를 낳게 되면 어느 교회로 다니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하여 자녀를 가장 가까운 교회로 보내고 일단 그들이 선택할 줄 알게 되면 종교에 대하여 스스로 결심하게 하기로 했다. 나는 십대 초반이 될 때까지 이미 네 군데나 되는 교회에 다녀 보았으며 때때로 친척이 우리 집에 올 때면 그들의 교회에도 나가 보았다.

그러던 중 내가 만 열 네 살이 되었을 때, 친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나는 우리의 이 지상 생애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았으며, 지상에 만일 정말로 참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가 다녔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예배 그 자체는 좋았으나,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필요없으며 그저 참석만 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에게만



나는 내가 무지한 채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분을 지상에 있는 나의 부친과 매우 흡사한 분으로서, 내가 성장하고 진리를 찾아낼 것을 바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나를 무지한 채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전에 다녔던 다른 교회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한번도 연구한 적이 없는 다른 기독교 종파를 포함해 유대교와 이슬람교까지 연구했다. 비록 이 모든 교회는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갖고 있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진리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나에게 스스로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셨다. 내가 어떤 특정 신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 그들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의 길을 찾도록 했다.

어느 날 오후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교외로 나가는 길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당 옆을 지나치게 되었다. 아버지는 농담투로 “아직 저 교회는 안가 봤지?”라고 했다. 나는 저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 물었으며 아버지는 물론 교회라고 대답했다. 그 교회의 앞에 있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물론은 별명에 불과해. 그러나 저 교회는 가지 마라.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그 교회 건물이 우리 집에서 6~7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 물어 보기로 했다. 그 다음 주 지부장으로부터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편지가 왔다. 그것을 읽는 동안 기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어떤 교회를 알아볼 때 한번도 느껴 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것에 대하여 간구해 볼 때라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는 기도라고는 주기도문밖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에게 길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단한 기도를 끝냈을 때, 어머니가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아랫층으로 내려가자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어하는지 알아보고자 우리 집을 찾아 왔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들에게 혹시 내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왔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으며, 내 평생 처음으로 그 이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혼동이 되는 것 같았으나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너무나 분명히 밝혀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주님이 나에게 그 진리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그 다음 일요일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 말일성도 집회소로 출발했다. 나는 그곳에 도착했으나 혼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들어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일단 그 교회 안에 들어서자 나는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그 선교사들은 곧 나를 알아보았다.

여러 주가 지나는 동안, 선교사들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침례받도록 권했다. 나는 즉시 그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그때 만 십 육 세에 불과했으므로 부모님은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만 십 팔 세가 된 후에 여전히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허락해 주겠다고 했다.

만 십 팔 세가 되는 생일날 아침은 아름다운 날이었다. 나는 생일 선물을 열어 본 다음 그날 가장 좋은 순간은 침례받게 되는 저녁 7시 30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대학 수업을 받으러 갔다.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나를 만나러 왔다. 식사 직후 나는 병이 났으며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내가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집에서 나를 침대에 눕혀 주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아파서 침대에서 무릎꿇고 기도드렸다. 내가 오래 기다렸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통을 없애 주시기를 간구하자 큰 암흑이 방을 가득 채웠다. 겁에 질린 나는 이 공포를 이겨 나가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했다. 내가 눈을 뜬 것은 세 시간이 흐른 후였으며, 언니가 옆에 서 있었다. 언니는 좀 어떠냐고 묻은 다음 침례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햇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드렸으며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로 갔다.

내가 침례받은 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의 하나였다. 나는 이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을 재다짐했다. 침례받은 후 여동생을 교회로 데려 가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 내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침례받았다. 비록 부모님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방식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의를 심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 □

여러 계절

레이드 로버츠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강변에
오두막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서는 길로 돌아서
내려갔다. 그 날은 쾌청하고
따뜻한 늦가을 날이었다. 나뭇잎은 밝은
노랑색과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날은 내가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짐짐마다 다니며 전도하는 날이었다.
히긴스 장로가 웃으면서 “장로님의
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집은 물가의 가까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그 집의 옆에 수상
스포츠 장비가 기대어져 있었다.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힘있게 문을 두드렸다.

나는 “저는 로버츠 장로이며 이분은
히긴스 장로입니다. 우리는 전해드리고
싶은 구세주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연습했다.

안쪽 문이 열리고 칸막이 문 뒤에
푸른 눈, 긴 금발머리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약 17세에서 20세 사이의 평장히
예쁜 소녀가 서 있었다. 비행기에서,
선교 본부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또 이
오두막집까지 십오리 길을 걸어오면서
천 번도 넘게 반복해서 조심스럽게

연습했던 말과 문장이 남김없이
사라져서 생각나지 않았다.

입을 열었으나 “옥” 하는 묘한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히긴스 장로가 나를 보고 씩 웃고는
그 소녀를 쳐다 보았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전도자이며
숙녀분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미대륙의 그리스도*
팸플렛을 주고 그녀의 가족과 만날
시간을 약속했다.

히긴스 장로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대학에서 뮤지컬 연극을 전공했다. 내가
그 지역에 도착한 첫날은 선교사
준비일이었으며 우리가 옷을 빨고 있는
동안 히긴스 장로는 공공 세탁소에서
부인들에게 팝송을 불러 주었다. 그들은
그의 노래를 좋아했다. 우리 옷을
건조시키는 동안 그는 다섯 차례나 토론
약속을 했다. 그는 때때로 문간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더 내성적이
되어 내 생각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부끄럽고 무섭게 생각했다.

히긴스 장로는 냉담하게 “다음 몇 집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 더 시간 약속을 하고 또 한 여인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어떤 교회 옆에 여러 채 모여 있는 집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다시 해보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물려서서 기다렸다. 성직자 칼라가 달린 옷을 입은 어떤 키 큰 사람이 문을 열고 우리를 보고 미소지었다.

그는 매우 정확한 영국 액센트로 “무슨 일이요, 젊은이?” 하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우편물함을 훑듯 보고 숨을 꿀꺽 삼키며 물려섰다. “목사, 리처드 컷츠 박사.”라고 씩어 있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짧은 기도를 드렸다. 나는 히긴스 장로가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몇 초 동안에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스쳐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모세와 불타는 덩불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우리의 맨 처음 초등학교 선생님, 요셉 스미스의 첫 시현의 중요성을 설명한 주일학교 교사, 산상수훈에 대하여 가르쳐 준 숙모, 십사반에서 신권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해준 삼촌 등이 생각났다. 나는 유태주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다. 우리 선생님 가운데 박사 학위를 이름에 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컷츠 목사가 틀림없이 말할 줄 알 희랍어나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배운 것과 이곳에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의 힘과 중요성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로버츠 장로입니다. 이분은 히긴스 장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컷츠 목사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그는 약간 놀란 것같이 보였다. 그는 미소지으며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했다. □

“그가 길을 예비하시리니”

캐롤린 슈나이더

“이건 공평하지 못해.” 나는 혼잣말로 한 것이었으나 가장 친한 친구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무엇이 공평하지 못하지?”라고 물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같이 걸어 가면서 나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우선 나는 항상 사내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하기를 좋아했으며 내가 네 자녀 가운데 만이지만 결코 숙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부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어머니와 말다툼하는 것도 싫어했다.

나는 때때로 가정 생활이 힘든 것 같은 생각에 염증이 나서 작은 돌을 건어 찼다.

나는 이렇게 불평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아.” 극히 최근에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관하여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마리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후에 그녀는 그 당시에는 가정 환경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지 어떨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곧 결정했다.

조금 더 길을 따라 걷다가 그녀는 나의 태도에서 어떤 점이 나쁜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대신 경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니파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일 3:7)

그녀의 교회 경전에서 인용한 그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나에게 물론경을 읽도록 간절히 권고했었으나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는 내가 십계명을 배웠으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 년이 지난 지금 나와 부모님의 사이는 매우 좋다. 나는 또한 이 교회의 회원이다. 비록 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가족의 압박도 받았고 간증도 조금밖에 없었으나, 나의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고 간증을 쌓고 침례받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기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었으며 주님은 내가 그의 계명에 순종할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 □

“주

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고등학교 삼학년 생활이 시작되어 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앞에 놓인 훌륭한 한 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학교 수업에 잔뜩 흥미를 느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좋은 점수를 받기로 결심했다. 또 바로 얼마 전 우리 세미나리 반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제사 정원회 제일보조로 부름받았다. 그뿐 아니라 새로 사진에 대한 취미를 붙이고 있었다.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는 날씨가 지루하고 신선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학년도 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마 매일 반 시간 동안 경전을 읽겠다고 결심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신약전서를 읽기로 했으며 곧 그것에 몰두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나는 학교 책을 젖혀 놓고 우리 방의 책상에 앉아서 경전을 꺼집어내곤 했다. 매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 읽음으로써 참으로 영적으로 고양되었다. 그러나 첫째 주가 지난 후 문제가 생겼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뒤 성경을 꺼내 마태복음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것이 없었다. 영감을 받는 느낌이 없었으며 아무 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냥 글자를 들여다볼 뿐 성구에 정신이 쏠리지 않았다. 나는 읽기를 중단하고 책상에서 눈을 떼고 시선을 위로 올렸다.

나는 “아니,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날 학교에서 보낸 우울한 하루의 작은 일화가 생각났다. 나는 비회원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앉아서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곧 부도덕한 이야기와 농담에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거기 끼어들었다. 나는 웃기도 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그런 말을 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때만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경전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페이지에 다시 시선의 초점을 맞추니 이런 말씀이 눈에



나는 무엇을
있는가 ?



잘못하고

카알 휴턴

떠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 : 36~37)

나는 그 이전에는 경전을 통하여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이때 영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경전을 읽고 표시하며 경전을 읽는 것을 정말로 즐겁게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경전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구세주께서 그렇게 자주 꾸짖으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좀 비슷했었다. 나는 다시 성경에서 눈을 떴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비록 내가 받은 응답은 우렁찬 음성이나 땅이 갈라지듯 큰소리로 온 것은 아니었으나, 그 권세는 내가 스스로를 다시 평가해 볼 수 있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다. 그 해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새로운 점을 접하게 될 때마다 나는 그 부분에서 나 자신의 품행을 점검하곤 했다.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면도 좀 있었으나 나의 성격, 태도, 행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 자신이 더 좋아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표준과 더불어 여러 가지 축복이 왔다. 매일 반 시간을 들임으로써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경전을 읽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한 이래로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분야가 발전하기 시작하는가를 보았다.

나는 내가 직접 세운 목표 가운데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으며, 놀랍게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최고 점수까지 받았다.□

멜빈 레비트

일

란성 쌍둥이는 두 사람의 외모가 똑같아 보인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플라크마인의 렌 해리스와 로우
해리스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다.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인 만큼 서로 다르다.

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로우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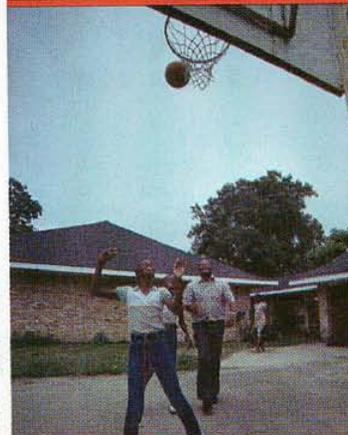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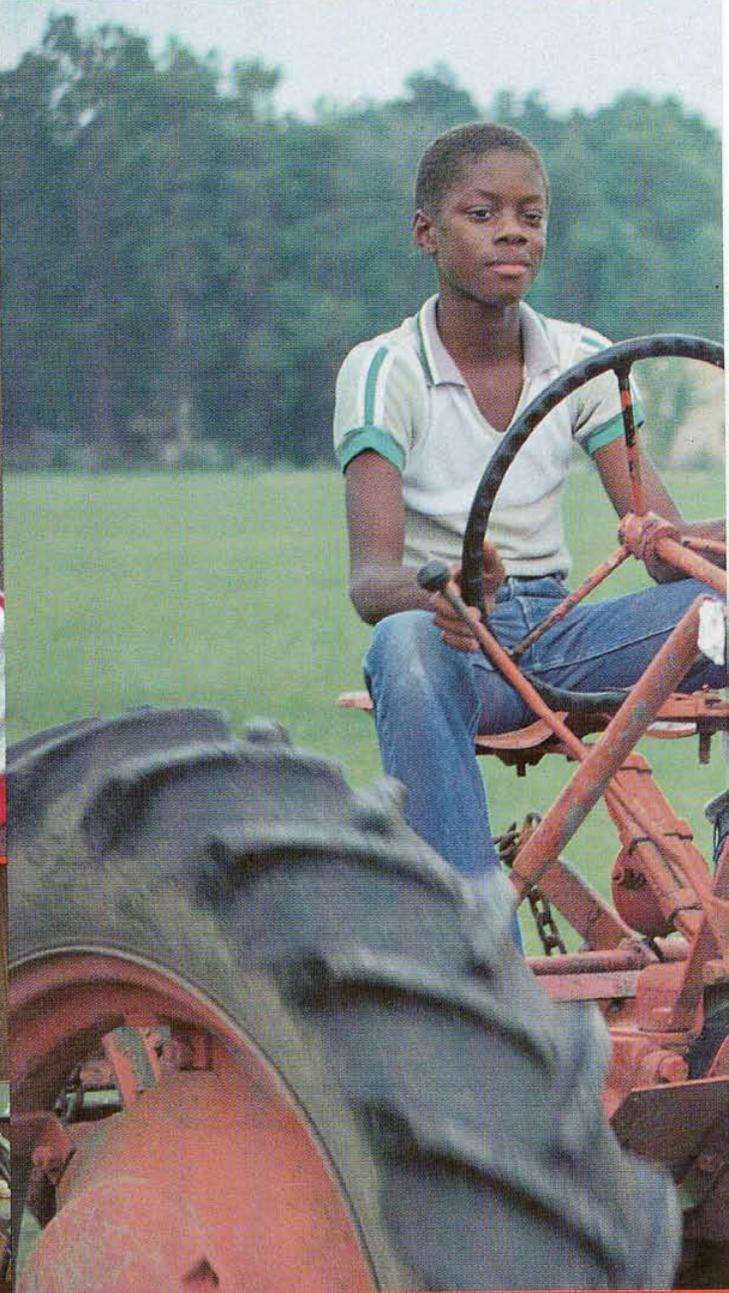
렌은 자신의 화학 장비로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로우는 여가 시간에 책과 사진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까지 그는 여러 권을 독파했다.

부모 말에 의하면 로우는 어머니처럼 차분하고, 렌은

두 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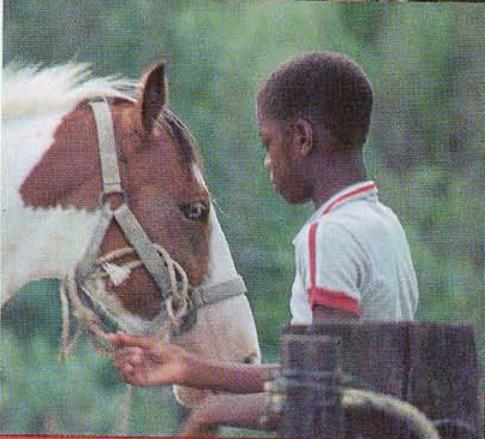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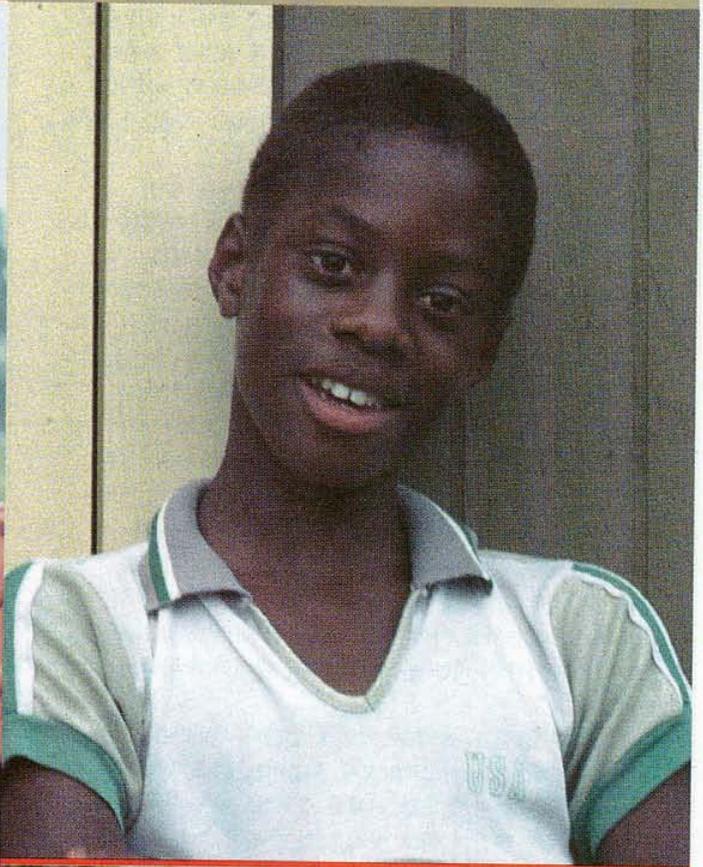


행복

아버지처럼 활력이 넘친다.

실제로 렌과 로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비슷하기도 하다. 두 사람 다 그들 가족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을 변두리의 조그만 농장에서 말타기와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두 사람 다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둘 다 낚시를 좋아한다. 두 사람 다 농구와 야구 및 스카웃 여행을 좋아한다.

또 두 사람 다 집사가 된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카페와 경찰서 사이에 있는 보울링장을 개조한 예배당에서 성찬 전달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주일학교와 집사 정원회 모임에서



문동

복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에서 신권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장로 정원회 회장인 부친이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는 것을 보고 또 상호부조회 회장인 어머니가 부친이 신권을 존중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배웠다.

그들의 아버지는 고등 학교 교장이며 어머니는 영어 교사이므로 그들의 가정에서는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해리스 가문에서의 교육에는 회복된 복음의 진리도 포함된다.

플래크마인은 사탕수수 밭과 부드러운 아침 안개가 펼쳐진 평평한 대지의 일부이다. 해리스의 집은 미시시피강에서 불과 한 구역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가족은 자주 함께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그 출렁이는 강물로 그들의 영을 가라앉힌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행하는 수많은 활동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가정의 밤 시간에는 아들이 교대로 공과를 맡는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린다. 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도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 서로 끌어 안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문으로 달려가 맞이하고 아빠와 씨름합니다.”

복음 공부도 한다. 로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일 밤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고 또 모두 혼자서도 읽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물문경 전체를 살펴봅니다. 아빠가 ‘오늘 밤에는 무엇에 대하여 읽고 싶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읽을 것입니다.”

해리스 가족은 친밀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해결해야 할 의의 차이도 있다. 불평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족 평의회에서 그 일을 한다. 해리스 형제 부부는 공평하고 애정을 쏟으면서도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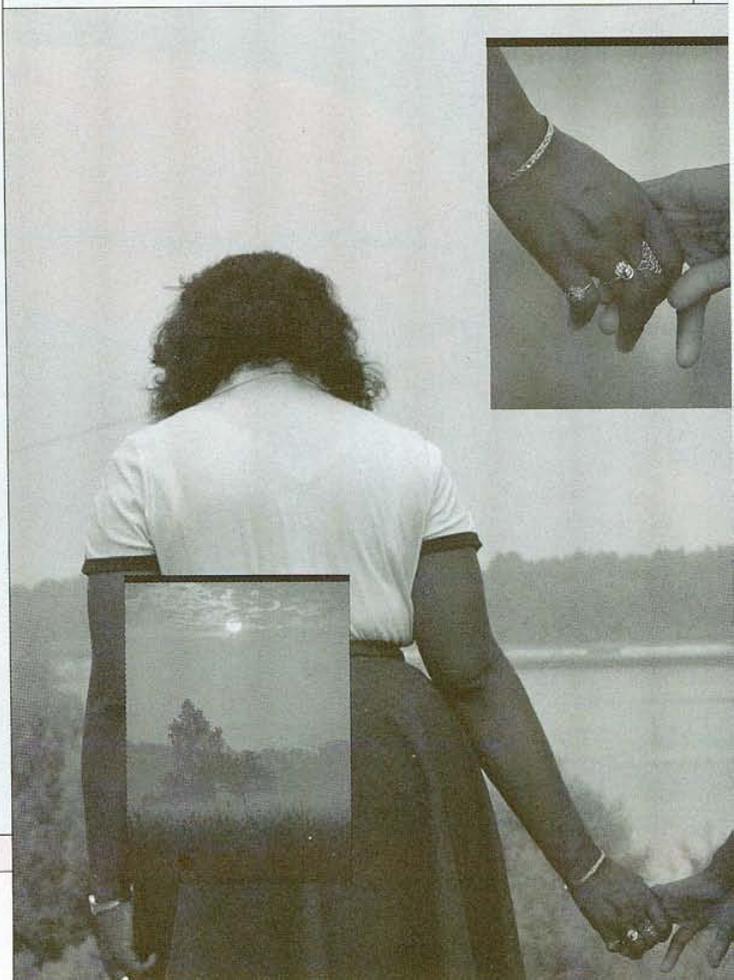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사랑이 깃들어 있으며 그 사랑은 표현되기도 하고 저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로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족을 매우 사랑합니다. 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보여 주었습니다. 부친은 그것을 특별히 네 번씩이나 보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 물에 네 번 빠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친께서 구두와 옷을 모두

다 입은 채로 물에 뛰어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인봉되고 나서 나는 마치 우리의 사랑에 대한 보험 증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 가정에서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는 영예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길 건너편에 사는 만 12세의 집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했던 것이다. 로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신권을 받기 위해 충분한 나이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나는 여행을 떠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우리에게 신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렌은 이렇게 말한다. “또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친은 우리가 제이 외국어를 공부할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서반아어와 불어를 좀 배웠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저축하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과 또한 봉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다. 해리스 자매는 아이테어 자매에게 방문 교육을 갔던 날에 대하여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데 그날 마침 그 집에 렌과 로우가 와 있었다. 그들은 아이테어 자매가 고장난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었다. 렌은 이렇게 말한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즐겁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봉사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분의 잔디를 깎아 드리려 합니다.”

해리스 형제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리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그들은 우등생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저의 친정집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누이들이 의로운 여성으로 자라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의로운 남성으로 자랄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바쳤읍니다.”

해리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저를 사랑하며 저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매일 저는 그들을 위하여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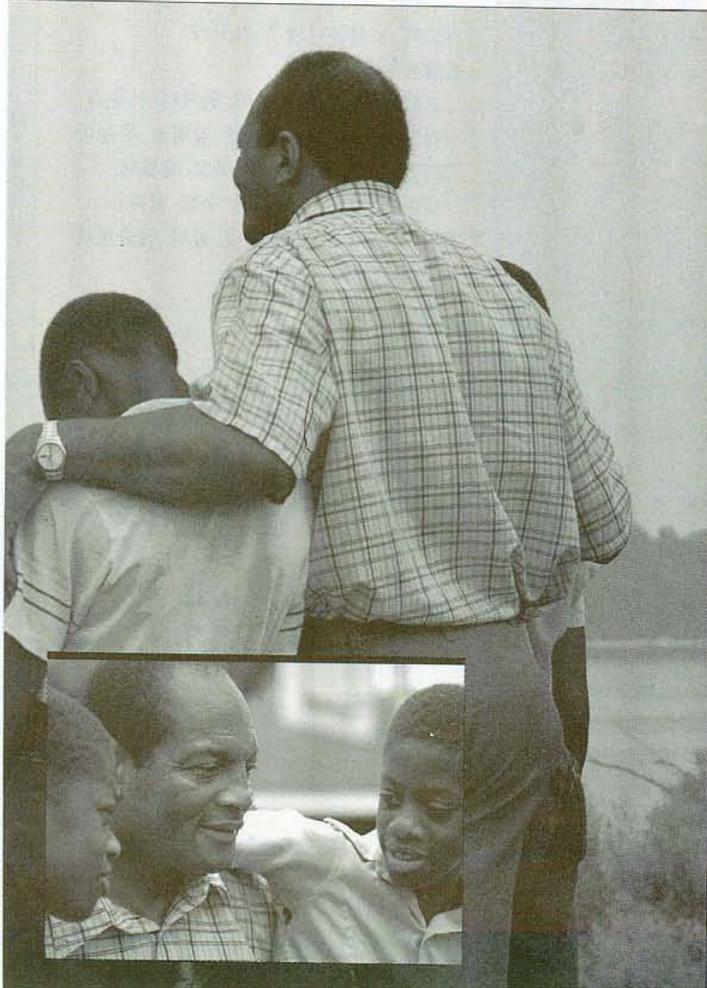
“제가 신권을 받았을 때 느낀 기쁨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우리 아들들이 집사가 될 수 있는 날을 고대했읍니다. 지부장님께서 그들이 아론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셨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읍니다. 저는 그들이 향상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이 알도록 마련하신 것을 모두 다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는 렌과 로우가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그들의 부친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영화나 게임이나 큰 고기를 낚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해리스 형제는 젊을 때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산 일기이며 이 소년들은 그 이야기 중 많은 것을 다 외우고 있다. 렌과 로우는 늘 이야기 하나만 또 하나만 더 해달라고 조른다.

그러나 해리스 형제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끝낸 후에는 아들에게 그들이 최근에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나서 그들 이야기에 귀기울인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하며 깨달은 것을 교환한다. 사랑과 지식의 실이 한 가닥씩 짜여져 끊어질 수 없는 결속을 이루게 된다.

렌과 로우는 운 좋은 젊은이다. 그들은 루이지애나의 기름진 푸른 땅, 험찬 미시시피강, 친절하고 의로운 부모, 신권의 축복 및 형제로부터 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낯선 사람은 이 두 형제를 구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실제로 똑같은지는 알을지 모르나, 이 둘은 사랑과 목적과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 강한 가족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





나는 처음으로 침례 접견을 실시한다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어 “자,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리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맞은 편에 앉은 중년의 캄보디아 여인이 “좋습니다, 선생님.” 하고 대답했다. 우리 지방부의 장로들은 캘리포니아 중앙 지역에 정착한 동남아시아 난민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구도자를 대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선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지난 며칠간 그 질문을 연구하고 연습했으므로 그 만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그녀를 가르친 장로들은 그녀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더니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고 말했다.

영어가 어려운 언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 질문을 좀더 단순하게

온 마음을 다 하여

마이크 오스틴

물어 보았다.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그녀는 마치 내 말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는 웃기 시작하다가 “저는...저는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침례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캄보디아어로 예배보는 지역의 지부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접견하지 않고는 그녀가 침례받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나,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하려고 애써도 그 질문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라, 장로들이 곤경에 닥치면 보라고 준 선교사 토론 책자를 펴 들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온 아시아 사람이 사용하는 너댓 가지 언어로 적힌 복음 원칙을 뒤적거렸다. 첫번째 토론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 구세주의 그림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그 그림을 보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힘차게 고개를 앞으로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에 놓인 그림을 분명히 알아보고는 “예, 선생님.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영어를 잘 모르는 그녀는 모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단어와 감정을 사랑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압축시켰다.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녀가 요셉 스미스, 벤슨 대관장, 십계명, 십일조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물어볼 때는 그 토론 책자에서 술병, 담배갑, 커피잔의 그림을 찾아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위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 주자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안됩니다. 선생님.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대답하여 접견이 끝났는데, 대부분 특정 인물이나 개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주는 영의 증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받았다. 나는 그녀를 축하해 주고 침례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을 때 다시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며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모든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것이 생각났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39)

비록 이 여인은 접견하는 동안 겸손하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접견 시간 동안 그녀가 대답한 것은 나에게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복음의 본질을 배웠던 것이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누구도 그에게 구세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확신시킬 필요가 없었다. 저절로 그녀에게 그 확신이 왔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알고서는 주님의 법률 가운데 어떤 것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접견 이후로 나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간증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영이 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순박한 피난민 주부가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예,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깊은 영향을 받은 간증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



사스케하나